

- 지 면 안 내
- 02 훼손도서 일년에 2천여권 넘어
 - 03 사고와 표현에 대한 신입생들의 생각은?
 - 04 2011년도 등록금 이번에도 동결될까
 - 05 다문화 아동들의 인권
 - 06-08 제25회 한성문학상 당선작
 - 09 순수한 동화의 새로운 해석
 - 11 취업의 골레를 벗어나고자 하는 사람들
 - 12 일상 속의 휴식, 템플스테이



독일대학생들이 옷을 벗은 이유는?

오스트리아 타임즈에 재미있는 화보가 실렸다. 학생들이 누드차림으로 강의실에 등장한 것이다. 실오라기 하나 걸치지 않았지만 외설스럽지 않고 자연스럽다. 독일 전역에서 모인 대학생들이 카페라 앞에서 옷을 벗은 이유는 무엇일까.

다름 아닌 '등록금 인상 반대' 때문이다. 현재 독일에서 대학 등록금을 징수하는 주는 전국 16개 주 가운데 바덴뷔르템베르크, 바이에른 주 등 6개 뿐. 나머지 주는 등록금이 없다. 재미있는 것은 이 등록금이 학기당 300-500유로(약 80만원)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그들은 이마저 '전면 폐지하고 무상교육을 실시하라'고 주장하고 있는 것이다.

우리의 사정은 좀 더 심각하다. 사립대학의 등록금은 한 학기 당 5백 만 원을 육박하고 있으며 대학생들은 학비를 내기 위해 부모의 허리를 한 층 더 휘게 하거나 학자금 대출 등으로 스스로 부담을 진다. 정부는 '학자금 상환제' 같은 임시처방만 제시한다. 등록금 인하 없는 학자금 상환제는 독이 든 사과에 불과하다. 작년 여러 사립대학이 학생들이 힘겹게 마련한 고액 등록금을 적립금으로 쌓는 것도 모자라 위험자산에 투자해서 손실을 봤다는 뉴스도 있지 않았는가. 사발 시위 등을 통해 등록금 반대를 외친 대학생들은 경찰에 의해 연행됐다. 등록금 인상에 반대하는 대학생들의 머리카락이 수북이 쌓인 아스팔트 거리가 찍힌 사진을 볼 때 가슴이 먹먹해지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

우리는 동결이 아니라 인하를 당당히 주장해야 한다. 학생들의 등록금으로만 운영하는 현재의 사립대학의 현실도 알아야 한다. 학교의 건물 건립부터 재단과 교직원 임금도 학생들의 등록금에 의존하고 있는데 교육 시설 개선과 질 좋은 교육에 들어갈 돈이 어디에 있을까. 이어 부실 사회재단 혹은 비리 사회재단으로 인해 세고 있는 등록금에 정부의 감시기능은 전무하다. 바로 지금 여기 우리들의 감시 기능은 어떠한가. **이성미 편집국장**

2011년 공개기구 및 단과대 선거 대부분 무산

학생들 무관심 속 저조한 투표율, 후보자 등록도 난항



인문 대학	권경렬	경영	송수민
영어영문	보결	무역	보결
역사문화	어수인	경제	노지선
지식정보	최다한	행정	리승규
패션디자인	강준실	부동산	이현세
의류패션산업	이준호	멀티미디어	문상호
무용	김지현	컴퓨터공학	서경진
회화	이승호	정보통신공학	보결
시각·영상	조원우	정보시스템공학	신석호
애니메이션·제품	보결	산업경영공학	김진홍
인테리어디자인	보결	기계시스템공학	정세준

2011학년도 학생회는 어디로 갈 것인가. 2011년 총선 결과, 총대의원과 동아리연합회만이 세워졌을 뿐 총학생회와 단과대 학생회, 공개기구는 모두 신입 장(長)을 선출하지 못했다.

후보자가 등록돼 지난 달 29-30일 양일에 걸쳐 진행된 총학생회, 총대의원회 선거에서는 총대의원회만 선출됐다. 총학생회는 투표율 미달로 부결됨에 따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시행세칙 제 10장 당선 제 43조 2항에 의거하여 선거가 부결됐음을 공고했다.

총대의원회는 총 재적인원 150명 중 88명(58.6%)이 투표하고 80명(90.6%)이 찬성해 '바른고장이로' 선거운동본부가 당선됐다. 총학생회 선거는 총 여학생 재적인원 3천50명 중 896명(29.37%)이 투표해 저조한 투표율을 보였다.

동아리연합회는 지난 2일 치러진 선거에서 총 재적동아리 42개 중 33개(78.57%)의 재적인원 127명 중 74명(58.27%)이 투표해 기호 2번 'Nowhere'가 당선됐다.

총학생회를 포함한 각 단과대는 후보자등록이 하나도 이뤄지지 않아 2011년 단과대 학생회 선거는 다음해 보결선거로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새로운 학생회가 건설되지 않은 상황에 방종 학생회 일정 및 세터추진 등은 기존 학생회가 맡아 진행한다. 우선 총학생회는 이미 세터추진위원회를 편성한 상태이고 내년 총학생회가 세워질 때까지 업무를 진행하고, 학생복지위원회는 2월에 다이어리 배부까지 맡는다. 사회과학대는 '건설준비위원회'를 꾸려 세터를 준비할 예정이다. 공과대는 기존 학생회가 3월 보결선거가 진행될 때까지 현 학생회를 이어간다.

이번 선거에 후보가 미비했다는 지적이 있다. 김다솔(무용 3)학생은 이번 학생회 선거에 대해 "선거에 학생들의 관심도를 이끌어내지 못한 것 같다. 후보자 후보가 덜 됐고 투표장이 적어 신경 안 쓰고 지나가는 경우가 많았다"고 말했다. 또한 그나마 등록된 총학생회에 대한 중선관위의 선거 정책토론회가 열리지 않은 것도 문제점으로 지적된다.

당선된 제 27대 총대의원회 '바른고장이로'는 '학생들에게 신뢰받는 대의원을 만들겠다'는 입장이다. 이에 대의원의 자격을 분명히 하고 총회 및 감사의 투명성 및 공개성을 공약으로 내세웠다. 한영준(의예 3)신인 총대의장은 "대의원 등 즉시 충분한 교육과정을 거쳐 대의원으로서 자격을 확고히 만들 것"이며 "모든 총회와 감사가 진행되는 과정 및 결과를 전체 학생들에게 공개해 투명성과 공개성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 전했다. 그는 "대의원 140명의 표를 바탕으로 이 자리에 올랐지만 모든 학생들의 지지를 받은 것이라 생각하며 '바른고장이로'란 이름에 걸맞게 학교의 대소사를 학우들에게 거짓

없이 전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소감 및 포부를 밝혔다.

제 25대 동아리 연합회 'Nowhere'는 동아리연합회에서 출력 및 복사 가능 ▲동아리 홍보강화 ▲동아리 축제 활성화를 공약으로 내세웠다. 동아리 박람회 규모를 늘리고 실질적인 지원금을 통해 동아리 홍보를 보다 원활하게 만들겠다는 것이다. 또한 공연동아리 경연을 살려 현 무제 프로그램을 기획하겠다고 한다.

제 25대 동아리 연합회 'Nowhere'의 이환승(7계 2)신인 회장은 "뽀아주셔서 감사하고 앞으로 동아리 회원들의 복지 및 동아리 홍보에 비중을 늘리는 데 힘쓰겠다"고 전했다. 이어 "동아리 홍보책자의 경우 잡지처럼 흥미롭게 제작해 동아리에 대한 소개에 관한 알림책자를 만들어 세터 등에서 신입생들에게 배포할 것"이라 말했다.

이성미 기자 sangmi@hansung.ac.kr

동아리 분과실 사용에 일부 불만 제기

형평성을 고려해 전체 동아리 사용 가능하도록 해



▲ 지난 달 26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총학생회가 '연평도 전투 전사자 합동분향소'를 운영한 모습이다. 총학생회 측은 "연평전투 전사자들의 넋을 기리며 학생들의 경각심을 제고하고 연평전투에 대한 올바른 지식을 전달하기 위함"이라 취지를 전달했다. 이에 100여명의 학생 및 교직원들이 조문했다.

동아리의 공간 대여 문제에 일부 동아리가 불만을 제기했다. 현재 교내 동아리가 사용할 수 있는 시설은 인성관 1층에 위치한 동아리연습실, 세미나실, 체육분과실로 모두 세 곳이다. 현재 공간대여는 매주 화요일, 동아리들이 모여 시간을 조정하는 회의로 한 주 동안 대여 순서를 정하는 방식을 운영하고 있다. 선착순으로 순서를 정하던 중전보다 조정과정을 거친다는 점에서 대다수의 동아리들에게 호응을 받고 있다.

서민혜(무역 1)학생은 "회의시간이 있어 무조건 선착순으로 관리되면 예전보다 사용하기 수월해졌다"며 "전에는 금·토요일 양일에 한 동아리(분과실)모두 예약하면 해당 요일 중 일부 시간만 사용하고 싶은 동아리는 사용할 수 없었다. 지금은 여러 동아리가 모여 서로 시간을 조율하기 때문에 보다 많은 동아리가 공간을 나누어 사용할 수 있어 만족한다"고 전했다.

일부 동아리는 동아리 특성상 체육 분과실만 사용이 가능한 경우를 지적했다. 공연 동아리

는 체육분과실과 공연분과실 모두 이용에 불편함이 없으나 체육동아리는 공연분과실을 이용하는 데 적합하지 않아 문제가 되고 있다는 것이다.

태권도 동아리 '한얼'의 박정희(회화 2)회장은 "동아리 연습실과 체육분과실의 용도를 분명히 구분해줬으면 좋겠다"며 "우리 동아리는 맨발 운동인 특성상 매트가 깔린 체육분과실만 이용할 수 있는데 체육분과실에 많은 동아리가 몰리면 일주일에 한 번도 운동 스케줄을 잡기 힘들기 때문이다"고 말했다.

이에 동아리연합회 측은 모든 동아리의 형평성을 고려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성스민(7계 3)동원회장은 "예전에는 동아리 활동에 맞춘 우선권이 있었는데 동아리 전체회의에서 모든 동아리가 사용할 권리가 있는 공간이니 형평성을 고려해 모두 사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자는 결론을 내린 바 있다"고 설명했다.

이성미 기자 sangmi@hansung.ac.kr

2대와 더불어 ...

더불어

그대와 더불어 살고 싶습니다. 더불어

안녕하세요 저희는 KOICA-한성대학교 국제개발협력과 해외봉사 하히호 2기 더불어입니다. 더불어란 "더불어 함께 하자"라는 의미로 만들어 졌습니다.

이번에 저희는 12월 27일 이태주 교수님의 지휘 아래 캄보디아로 14박 15일 동안 해외봉사를 떠나게 되었습니다.

12월 첫째주, 행복프로젝트(동전기부, 여름웃기부)를 실시, 학우들의 많은 성원에 힘입어 성공적으로 행사를 마쳤습니다.

활동계획

크게 나누어서 보면 교육봉사(음악교육, 체육교육, 미술교육)와 노력봉사(사랑의 집짓기, 우물파기 등)가 있습니다. 또한 한국의 날 행사(최신댄스, 태권도, 마술, 난타)를 통해 한국을 아이들에게 더불어 사는 행복을 나누어 주고자 많은 노력 중에 있습니다.

학술정보관 소장 도서, 보기만 하세요

훼손도서 1년에 2천여 권 넘어

얼마 전 우리 대학 학술정보관은 교육과학기술부가 실시한 '2010 대학 도서관 평가' 지역사회 연계 및 대외협력 활성화 분야 소규모 대학에서 1위를 차지했다. 이 평가를 통해 학술정보관은 4천만원의 지원금을 받았다.

그렇다면 학술정보관을 이용하는 이용자의 태도에도 훌륭한 점수를 줄 수 있을까, 하지만 안타깝게도 훼손된 도서로 불편함을 느낀 이용자가 적지 않은 실정이다. 페이지가 찢겨 있거나 문제가 풀려 있는 등, 사라지고 훼손돼 수난을 겪고 있는 책들은 어떻게 처리되고 있을까.

훼손도서는 도서의 상태에 따라 다르게 처리된다. 일부 페이지 낙장, 표지훼손, 책등 훼손 등 간단한 손상의 경우 보수처리 한다. 책의 하드커버나 제본불량인 경우에는 제제본을 하게 된다. 폐기도서로 처리되는 경우

는 훼손이 심하여 보수할 수 없는 경우, 제제본 금액이 고가인 경우이다. 폐기에정 도서는 도서 이용률을 확인하고 필요시 신책을 주문하게 된다.

3월부터 현재까지 보수 도서 1천 650권, 제제본 대상 50권, 폐기대상 300권으로 우리학교에서 훼손도서로 처리된 도서는 1년에 약 2천여권이 넘는다.

최한솔(한국어문 1)학생은 "도서관에서 토익공부를 하려 빌렸던 책에 문제마다 볼펜 자국이 가득해 불편을 겪었다. 자꾸만 답으로 눈이 가 결국 그 책을 보지 못했다. 또 매우 읽고 싶었던 책을 빌려 읽던 중 마지막 장이 없어 매우 허무했던 경험이 있다"고 훼손도서로 인해 겪었던 일을 이야기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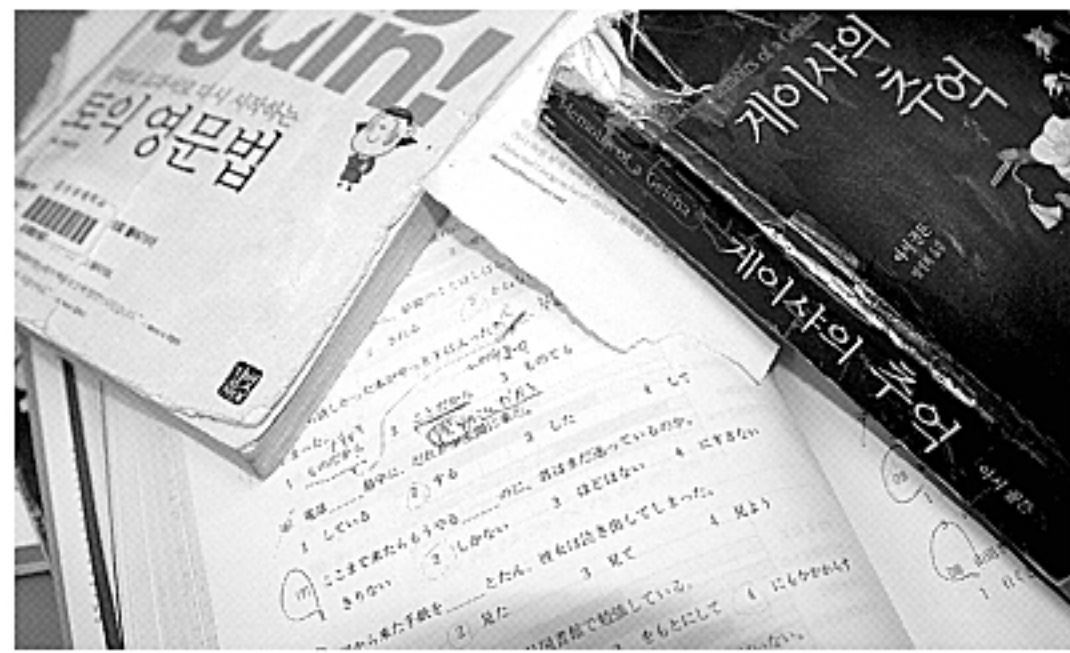
훼손도서를 처리하는데 드는 비용에는 보수비용, 제제본 비용, 폐기에

정 도서의 대체도서 구입비용 등이 있다. 고의로 도서를 훼손한 경우 훼손한 학생에게 동일(유사)도서로 변상하게 하고, 정리비를 납부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동일(유사)도서로 변상이 불가능할 경우, 도서관 규정에 따라 현금으로 변상토록 한다. 변상책임을 물을 자가 없다면, 별도의 교비회계 예산을 책정하여 지출하고 있다.

깨끗한 책 이용을 촉구하는 책사랑 캠페인의 일환으로, 지난 2007년 고의파손이나 낙서, 이용부주의로 인한 훼손도서 약 50권의 전시회가 개최된 바 있다.

깨끗한 책 이용을 촉구하는 책사랑 캠페인의 일환으로, 지난 2007년 고의파손이나 낙서, 이용부주의로 인한 훼손도서 약 50권의 전시회가 개최된 바 있다.

김철희(학술정보팀)팀원은 "반납할 때 확인하지 못한 훼손도서는 대출된 내역을 조사해서 처리를 한다. 훼손도서로 분류되면 우선 대출도서로 등록해놓고 처리 후 다시 책을 찾아놓게 된다"며 "많은 학생들이 함께



사용하는 과제도서를 찾아간다면, 책을 훼손하고도 모른 척 하는 학생들이 있다. 책을 깨끗이 사용하고 바꿨으면 한다"라고 전했다.

특히 소장요구가 많은 취업, 어학 관련 대출도서에 문제풀이나 낙서가 심하다. 김은정(학술정보팀)팀원은

간주린소식

제 23회 한성대 방송제 '시선' 열려

23회 한성대 방송제가 지난 달 18일, 미래관 DLC에서 열렸다. 이번 방송제는 '시선'이란 소재로 우리학교 방송국 HBS의 국원들이 제작한 'TURN', '한국에서 대학생으로 산다는 것', '눈새바람' 등의 제작오디오와 보도영상, 제작영상 등이 상영됐다. 이에 앞서 제3회 영상공모전 수상에 대한 정주택 총장의 상장 및 부상 전달과 수상작 상영도 진행됐다.

방송제 기획의도에 대해 김다은(기계 2)실무국장은 "각자 살아가는 방식이 다르고 사물을 바라보는 방식이 다르다는 걸 영상에 담아서 학우들과 시선에 대한 공감을 하고자 했다"고 말했다.

이상철 기자 ercast@hansung.ac.kr

'세상이 있다! 꿈이 있다!' 제3회 한성대영상제 열려

교양·교직학부가 주최한 제3회 한성대영상제가 지난 11월 20일에 미래관 DLC에서 열렸다. '세상이 있다! 꿈이 있다!'라는 슬로건으로 진행된 이번 행사는 50여편의 작품 중 예심을 거쳐 17편이 본선에 진출·상영돼 심사를 받았다.

심사결과, ▲1등 '신기루 프로젝트'의 '신기루, 대학생활의 환상'이 ▲2등 한우진(에너지제품 1)의 1명의 '고백'과 'ball' 팀의 'ball'이, ▲3등 'H-301'의 '장수를 꿈꾸는 장수마을'의 1팀이 ▲장려상 '일기예보'의 '오늘은 맑음'의 6팀이 각각 상을 수상 받았다.

이상철 기자 ercast@hansung.ac.kr

교직과정 예비교사 수업시연대회 개최

지난 달 24일 교직과정에서 주최한 예비교사 수업시연대회가 ELC에서 열렸다. 신재홍(교직과정)교수는 "올 해 중등임용고사 시험 3차 심층면접 시 수업시연능력이 결정적 변수로 작용하게 됐으며 교과부의 수업시연 평가를 대비할 필요가 있어 본 대회를 계획했다"고 취지를 밝혔다. 최우수상에는 정수경(영어영문 4)학생, 우수상에는 박혜영(한국어문 4), 장려상에는 정미정(에너지제품 4)학생이 선정됐다.

이날 심사위원으로 참여한 구순희 한성여고 교장은 "수업을 사전에 완벽하게 준비해야 한다는 것은 교사로서의 자질"이라며 "참여한 모든 학생들이 훌륭한 교사의 자질을 가진 것 같다"고 격려했다.

이상미 기자 sangmi@hansung.ac.kr

대학도서관 평가 우수도서관 선정

교육과학기술부와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이 실시한 2010년 대학도서관 평가 ▲지역사회 연계 및 대외협력 분야에서 우리대학 학술정보관이 소규모 대학 부문(학생수 8천명 이하)에 우수대학으로 선정됐다.

우리 대학은 FOL(Friends of Library)제도를 통해 지역사회 구성원들에 도서관의 자료와 시설을 개방하고 '저자와의 만남' 등의 문화행사를 지속적으로 추진해온데 좋은 평가를 받았다. 이번 평가는 대학도서관의 발전과 서비스 개선을 위해 시범실시된 것으로 57개 대학이 참여했으며 계량지표 평가(400점), 운영평가(400점), 이용자 만족도 평가(200점), 현장평가(사실 여부)등을 통해 10개 우수 도서관이 선정됐다. 선정된 도서관에는 교과부 표창과 함께 도서관 지원에 산이 주어진다.

이상미 기자 sangmi@hansung.ac.kr

동정란

안광준(사각영상디자인전공)교수
안 교수는 올해 융합문화분야 수상자로 선정되어 과학창의재단이 주관하는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상을 수상하였다.

한정수(기계시스템공학과)교수
한 교수는 지난 12월 2010년 한국정밀공학회 춘계학술대회에서 논문 '인체 동작 측정을 위한 근방정확성 센서 개발'로 최우수상을 수상하였다.

졸업앨범 구입 수 점점 감소해

우리학교 학생들의 졸업앨범 촬영 및 구입 수가 점점 줄어들고 있다. 2008년에 838명의 학생이 졸업앨범을 구입 한 이래, 2009년은 738명, 2010년은 650명(졸업예정자 1천 672명)으로 졸업앨범을 구매하는 4학년이 줄어드는 모습이다.

허준식(경영 4)졸준위장은 감소 원인에 대해 "대학 이전의 고등학교 생활은 모두들 함께하는 시간들이 많아 졸업앨범에 추억이 담겨있다. 그러나 지금은 취업과 군대 등으로 휴학을 하는 경우가 많아 같은 학년의 동기가 없어 구입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는 학생들이 많다"고 설명했다.

최근 인쿠르트가 졸업예정인 대학교 4학년생 272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 의하면 37.5%의 학생이 '졸업앨범을 찍지 않거나 찍을 예정'이라고 답했다. 또 52.9%의 학생들이 '졸업앨범을 구매하지 않을 것'

이라고 답했다. 이처럼 졸업생들끼리 함께하는 졸업사진의 의미가 퇴색되는 현상은 타 대학교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국민대 황중근(기계자동차 4)졸준위장은 "약 3천500명의 졸업생 중 졸업앨범을 구입하는 학생 수는 2004년 당시 2천600명이었지만 2009년에는 1천800명 정도로 현저히 줄어들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사회가 개인화되고 취업을 요구하는 현실 때문에 졸업이라는 의미가 예전과는 달리 형식뿐이라는 생각이 들기도 한다"며 "많은 학생들이 개인사진의 비중이 적고 앨범 구성이 맘에 들지 않아 구입을 하지 않기도 했다"고 말했다.

우리학교는 졸업사진 촬영에 학생들의 참여를 장려하기 위해 매년 4월 열리는 졸업앨범 촬영시연회에서 학생들의 투표로 통해서 졸업앨범업체를 선정한다. 각 스튜디오는 학생들의 눈길을 끌기 위해 사진을 찍은 뒤 바

로그 자리에서 수정해주거나 미니앨범을 내놓는 등의 전략을 쓰기도 한다.

이러한 노력에도 학생들이 사진을 찍지 않는 이유는 무엇일까. 민인기(정보 4)학생은 "대부분 모르는 얼굴인데 앨범을 구입할 필요성을 못 느낀다. 군대, 휴학 등으로 4학년 시기에 사진을 같이 찍을 동지나 친한 친구들은 이미 졸업한 상태이다"고 말했다. 또 "취업준비로 바빠서 때문에 각자의 일을 찾아가기 때문에 그럴 여유가 없다"고 덧붙였다. 조유정(인테리어 4)학생은 "처음 찍는 졸업사진에 미용실도 틀러 메이크업까지 하는 등 예쁘게 준비했는데 사진이 생각보다 예쁘게 찍히지 않았다"며 "큰 졸업앨범 중에서도 나의 사진이 몇 장 담겨 있지 않아 구입을 포기했다"고 말했다.

이예진 기자 odory11@hansung.ac.kr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시인, 도종환과의 만남

지난달 18일 우리 미래관 DLC에서 도종환 시인과의 '저자와의 만남' 행사가 개최됐다. 도종환 시인은 '마음을 움직이는 시, 세상을 움직이는 시'라는 주제로 자신의 시 '라일락꽃', '나무, 꽃', '복숭아나무', '멀리 가는 물', '흔들리며 피는 꽃', '담쟁이'와 사무엘 율만의 '청춘'이라는 시를 소개했다.

그는 "시인이란 사소해 보이는 것에도 눈여겨 봐 무엇인가를 창조해내어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는 사람이다"며 시를 쓰는 일이란 개인만을 위

한 것이 아니라는 이야기를 했다. 또한 그는 자신이 집필한 여러 시의 부분들을 인용하여 우리 삶의 방식, 혹은 세상을 살아가며 겪게 될 고뇌와 슬픔을 어떻게 이겨내며 또는 이를 어떻게 받아들이어야 하는지에 대해 설명했다.

그는 시인 본인이 가장 좋아하는 시가 무엇인지를 묻는 청중의 질문에 "대중이 좋아하는 시와 시인이 좋아하는 시는 다르다. 하지만 현재까지도 대중의 사랑을 받고 있는 '담쟁이'는 내 자신이 어려웠을 당시에 썼던

시이기에 애착이 가는 시"라고 답했다.

도종환 시인은 자신의 시 '멀리 가는 물'의 첫 소절인 '흐린 것들까지 맑게 만들어가는 물줄기'를 읊으며, "어린 시절엔 깨끗하고 맑은 고운심성들이 세상을 살다보면 더러운 물과 타협하며 살 수밖에 없다. 하지만 살 수 있다면 흐린 것도 깨끗하게 만들어 갈 수 있는 맑은 물이 되도록 노력 하길 바란다"고 강연을 마쳤다.

김보현 기자 annyung17@hansung.ac.kr

영어 우수 인재양성 프로그램 내년 2월 중 100명 선발

우리학교 교양영어교육과정 위원회에서 'English Honors Program(영어 우수 인재 양성 프로그램)'을 내년 3월부터 시행한다. 이는 본교 재학생 2~4학년 중 영어 우수자를 선발해 집중 교육 과정을 통해서 사회에서 필요로 하는 영어 인재를 양성하는 취지로 개설될 프로그램이다.

필요고사로 선발된 학생들은 1주당 3시간 씩 토폴 전문 강사에게 EIT 토폴 수업을 받고, 1주당 2시간 씩 그룹 스피크와 방학 중 1주일(2회)간 영어몰입캠프를 받는다. 그룹 스피크와 영어몰입캠프는 우리학교 외국인 교수들 통해 수업이 진행된다. 수업은 토폴 영어 위주의 수업으로 진행하며, 그룹 스피크는 간단한 기초회화에서부터 한 토폴을 정해 토론형식의 스피크 방식으로 진행된다.

영어 우수 인재 양성 프로그램을 수료하는 재학생들에게는 필리핀, 말레이시아의 단기 어학연수 대상 선발 시 우선권을 부여하고 교환학생 및 해외 연수 학생 선발 시 우선권을 부여 할 예정이며 수료증이 발급되고 성적표에 '한성대 영어 우수자'로 명시된다. 단, 학점 인정은 되지 않는다.

이병은(영어영문학부·교양영어과정위원장)교수는 "학교에서 사교육시장의 영어교육을 무료로 제공한다는 점이 특징이다"며 "많은 학생들이 참여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 프로그램의 첫 시행은 내년 2월 중 100명의 학생을 뽑아 2011년 3월부터 2012년 2월까지 운영하며 수강료는 전액 무료다.

김보현 기자 annyung17@hansung.ac.kr



의화장 재개장 기념 식수식 열려

▲ 지난 24일 평양 의화장 수련원 재개장을 기념하는 행사가 열렸다. 이 행사에 대해 안홍열(법인사무국)팀원은 "그 동안 단순한 수련용으로 사용하던 공간에서 벗어나 학생들이 충분히 휴식할 수 있는 장소를 만들기 위해 재개장한 것"이라 취지를 전했다. 이날 행사에는 정주택 총장, 이희순 이사장, 김덕자 이사장, 자문위원, 박명환 총무처장 등이 참석했다. (취재부)

〈표현 능력 상담 프로그램〉 신청자 모집

2010년도 2학기 한성대학교 사고와 표현 교육과정 위원회에서는 본교 재학생들의 표현 능력 신장을 위하여 상담 프로그램을 진행합니다. 재학생은 누구나 신청 가능하니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 목 적 ◎

1. 면대면 상담을 통한 개별 학습자의 글쓰기 고민 해결
2. 논리적이고 구조적인 사고능력과 표현 능력 향상
3. 전공과목과 교양과목의 리포트를 체계적으로 작성하는 능력 향상
4. 글쓰기와 프레젠테이션 문서 작성 능력 함양

상담 신청 방법

1. 신청 자격 : 한성대학교 재학생
2. 상담 기간 : 2010년 9월 13일(월) ~ 2010년 12월 10일(금)
3. 상담 영역 : 리포트, 프레젠테이션 문서, 논문, 서평 등
4. 신청 방법 : writing center 홈페이지 (상담) 메뉴 이용
(http://writingcenter.hansung.ac.kr/)
5. 상담 내용 : 맥락 파악, 주제 이해, 아이디어 생성, 글의 전개, 문장 표현 등
6. 기타 문의 : 사고와 표현 연구실(연구동 B101, ☎ 02-760-435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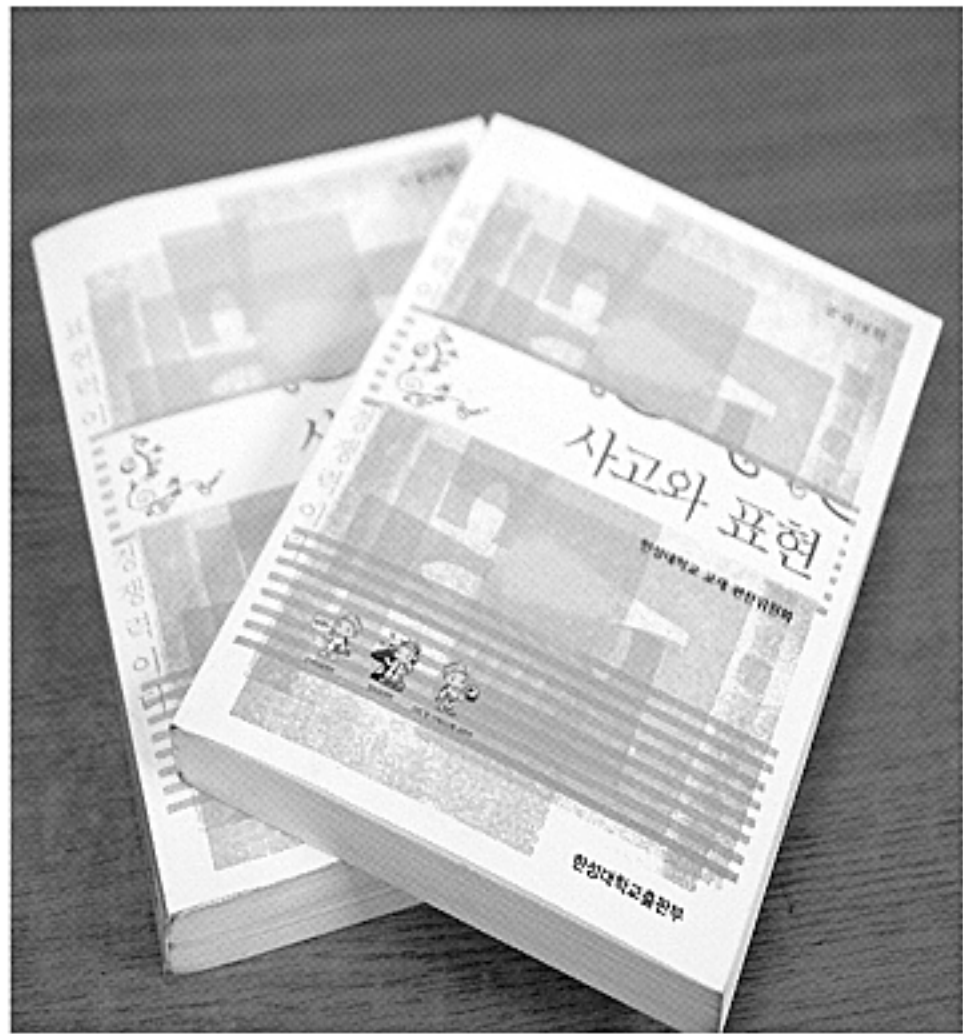
상담 진행 방법

1. 상담 신청은 writing center 홈페이지에서 사전 예약제를 기본 원칙으로 합니다.
2. 상담 희망 일시 48시간 이전에 신청해야 하며, 신청 현황은 MY PAGE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3. 상담 진행은 상담원과 학생 간에 면대면 형식으로 이루어집니다.
4. 상담 시간은 학생 1명 기준으로 30분~1시간 이내로 이루어집니다.
5. 상담 신청자 유의사항
 - 1) 상담 신청 시 홈페이지의 신청 항목에 내용을 모두 입력해야 신청이 완료됩니다.
 - 2) 상담 전에 과제 해결에 필요한 참고 서적을 미리 읽어와야 합니다.
 - 3) 상담 시 과제 준비 과정과 준비한 글을 개별적으로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사고와 표현 교육과정 위원회

'사고와 표현', 사고하고 글쓰는 능력 키워줬다

"타 단과대 학생들과 만날 기회 있었으면"



출판

- '책사 해적'이라는 관점에서 정말 인명 논란에 걸린 책이 출판되었습니다.

- 주장은 '우리는 단순한 영문학이 아닌 역사적 의미를 보여야 한다.' 이 요골적인 주장만으로는 찬양찬양사이에 대한 질문을 하는 것이지 질문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이 다루고 있는 책이 드러나도록, 그리고 주장하는 바가 분명히 드러나도록 수정문을 수정할 것.

- 문장이 자연스럽지 않고 조금씩 어색한 경우가 종종 눈에 띕니다. 어떤 다른 문장 '역사가 과거의 기록의 중심이고 그에 대한 문장은 지금 우리가 하지 누가 할 수 있는 것이다.' 앞과 뒤 문장이 '~고'와 같은 연결어미로 연결되는 것은 어색합니다. 앞 뒤 문장은 원인과 결과의 관계에 놓여 있습니다. 그러나 '역사'는 기록으로 남은 과거의 중심이기에 그에 대한 문장은 현재를 살고 있는 사람들의 문이라는 것이 더 수긍하는 것이 자연스럽습니다. 글 전체를 다시 읽으며 문장들을 다듬어 자신이 읽고 싶은 내용을 분명하게 담아 내도록 수정하세요.

- 반론을 반박하기 위한 한글과 세종 대왕의 시는 꼭 넣어야 할까요? 한글 전체에 대한 기록은 조선 왕조 실록에 남아 있습니다. 찬양 찬양 사전을 번역하는 사람들은 기록의 통속성을 거론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조선 왕조 실록의 기록이 충분하지 않다는 주장에는 쉽게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 그 시대를 살지 않으면 모른다는 것은, 실제 문헌이 생략된 어려움을 강조하기 위함이지, 그들이 문헌을 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는 것이 아닙니다. 반론을 펴는 사람들의 입장을 이해하고 오히려 반박하는 독자를 설득하기 어렵습니다. 수정하십시오.

- '책사 해적'의 의미, 단어와 단어 사이의 띄어쓰기, 하나의 단어를 붙여 씀, 단어를 국어사전에 등재된 것이지만 띄어쓰기가 틀린 부분을 찾아 수정할 것.

- 오타가 있으면, 사소한 실수로 보이더라도 이러한 사소한 실수로 인해 글이기에 대한 신뢰를 잃게 될 위험이 있습니다. 최고의 중요성은 아무런 강요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퇴고할 때 꼭 수정문을 제출하십시오.

▲ '사고와 표현' 교재와 과제물 제출 후 참석받은 내용이다.

세계 최고의 명문 공과대학 MIT에서는 글쓰기 수업을 4년간 필수로 들어야 한다. 공과대학 글쓰기 교육은 열댓 번 보면 어울리지 않는 조합이다. 그러나 MIT '글쓰기와 의사소통센터'의 스티븐 스트랑 소장은 "1980년 무렵 졸업생들에게 글쓰기를 필수과목으로 지정하라는 건의를 많이 받았다. 사회에서 생존하는 데 글쓰기가 꼭 필요하다는 게 그 이유였다. 대부분 기술자와 과학자인 그들은 업무의 35% 이상이 글쓰기와 관련있다"고 말했다. 미국 사회에서 글쓰기의 중요성은 이 사례에서 끝이 아니다.

미국의 성공한 기술자 4천명을 대상으로 한 기술자가 직장에서 필요로 하는 학과목 조사에서 많은 과목들을 제치고 '기술 글쓰기'가 2위로 뽑히기도 했다. 이처럼 미국 사회에서는 공학이란 부분에서조차 글쓰기가 중요하게 자리 잡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한국 사회도 글쓰기에 대한 관심이 높아 글쓰기에 대한 많은 책들이 출판되고 있다. 이런 추세에 맞게 우리 학교도 2006년부터 '사고와 표현'이란 글쓰기 강좌를 개설 신입생들의 필수 과목으로 지정하고 있다.

사회에서 글쓰기 능력을 중요시되고 있는 것에 대해 내은미(언어교육원)교수는 "21세기가 '지식 기반 사회'를 지향하며 인터넷의 발달로 누구나 독자이면서 동시에 필자인 시대이기에 효과적인 소통이 경쟁력이 된다"고 말했다. 조희정(언어교육원)교수에 대담도 비슷한 맥락이다. 조희정 교수는 "글쓰기는 자신의 표현하는 가장 강력한 도구이며 사회가 개인의 표현 능력을 필요로 하고 창의적 사고를 하는 인재를 원하는데 창의력의 원천은 글쓰기"라고 말했다.

다. 사회에 나가서 자신의 능력을 마음껏 펼치기 위해서는 다른 그 무엇보다 글쓰기라는 도구가 힘이 된다는 것이다.

그에 반해 조금 다른 대답도 있다. 김인경(언어교육원)강사는 "사회가 경제적인 것만을 추구하다 보니 문사철(문학·사학·철학)을 기본으로 하는 인문학이 사라져 버리기 시작했다. 인문학은 창의적인 사고의 바탕이자 자신을 돌아보고 자기를 표현하는 데 바탕이 되는 학문이다. 이런 인문학의 부족을 채울 수 있는 방안으로 글쓰기가 사회에 필요하게 됐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하지만 대답이 다르다고 중심적 내용과 글쓰기의 중요성은 떨어지지 않는다. 글쓰기가 창의성을 기르고 자신을 알게 해주며 강력한 자기표현의 도구이기 때문이다.

위와 같은 능력 향상을 목적으로 하는 수업 '사고와 표현'에 대해 학생들은 전반적으로 이 수업이 글쓰기 능력에 도움을 준다고 평가하며 자신의 의견을 제시했다. 이명진(한국어문)1학생은 "사고와 표현은 무척 좋은 수업이라고 생각한다. 과제가 많은 점은 다소 힘들지만 글에 짜임새가 생겼고 사물과 현상을 비판적으로 보게 되었다"고 말했다. 글쓰기가 단순하게 글에서만 끝나는 게 아닌 사고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이명진 학생의 경우에서 볼 수 있다.

일반적 인식을 넘어 글쓰기에 필요성을 강하게 어필하는 경우도 있다. 강노미(매디)1학생은 "정답 맞추기에 급급한 교육만 받던 중, 고등학교 국어교육과 달리 사고와 표현 수업은 주제에 대한 나의 생각을 글로 조리 있게 표현할 기회를 준다"

점에서 만족한다. 예를 들어 '사형제'란 주제에 관해 나의 생각을 제시하고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는 식이다"며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이어 "학생들의 일반적인 인식과 달리 예술대 역시 글쓰기가 중요하다. 자신의 작품을 설명하는데 정확한 의사소통이 필요하기 때문이다"고 의견을 제시했다.

첨삭이라는 시스템에 좋은 평가를 내리는 학생들도 있다. 유동수(부동산)1학생과 이연주(컴공)1학생은 "첨삭을 통해 글을 수정하고 자신의 생각을 다시 한 번 점검할 수 있다"며 첨삭시스템에 만족감을 드러냈다.

반면 개선해야 할 점에 대한 의견은 시스템적 부분과 수업 내용에 변화 등 다양한 이야기가 제시됐다. 강노미 학생은 "단대별로 나눠서 수업하는 게 창의적 사고를 가로 막는 것 같다"며 "타 대학 학생들의 생각을 알 수 있게 혼합해 수업하면 좋겠다"는 의견을 말했다. 수업의 목적이 창의적 사고와 글쓰기라면 어느 것이 더 좋을지 방향성을 제시하는 의견이다.

이명진 학생은 "조별과제에 대해 필요성은 인정하지만 조원들의 열의가 없을 경우 아무것도 할 수 없다"며 조별과제에 대한 의문을 제기했다. 유동수 학생의 경우, "한 수업당 듣는 인원이 너무 많다"며 "현행 40명 짜리 강제도 보다 더 적게 20~25명으로 잘라서 진행하면 교수님과 학생이 1:1 대할 시간이 늘어 수업에 더 도움이 될 것 같다"고 의견을 제시했다.

"사고와 표현" 수업 같은 글쓰기 수업이 단순히 1학년 교양과목에 그치지 않고 이어진다면 어떻게? 유동수와 이명진 학생은 "학년이 올라가

도 글쓰기 능력은 필요하겠지만 고학년이 되면 전공 공부에 집중하고 싶다"며 반대했다. 하지만 강노미 학생은 "전공공부와 글쓰기도 연계되는 것 같다"며 "고학년에도 이어지면 좋겠다"고 의견을 제시했고 이연주 학생도 "좋은 것 같다. 수업 나중에 회사와 사회생활에 글쓰기가 꼭 필요할 거 같기에 비슷한 수업이 이어지면 좋겠다"며 자신의 생각을 밝혔다. 글쓰기 수업에 필요성에 대해 의견은 통일 되지 않지만 모든 학생들이 글쓰기 능력의 향상에 필요성은 느끼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사고와 표현' 수업이 끝나고 나서도 일기나 메모, 지속적인 글쓰기는 이후에 글쓰기 능력을 향상시키는데 도움이 되는 습관이다. 나은미 교수는 "글쓰기 능력 향상은 반복적인 경험과 훈련이 필요하다"며 사고와 표현에 배웠던 지식을 바탕으로 전공수업 등의 글쓰기에 적용하면 좋다"고 구체적인 방안을 설명했다.

조희정 교수는 일기쓰기를 권장한다. "글쓰기는 대학생활 한 순간에만 쓰고 말 문제가 아니기에 습관처럼 꾸준히 써야 할 필요가 있다"며 일기쓰기는 쓰기에 습관화한 점에서 좋은 방법이다"고 말했다. 김인경 강사는 "메모하기도 글쓰기에 도움이 된다. 순간 생각나는 자신의 시선과 생각들을 바로 적어놓으면 언제든 글을 쓸 때 도움이 된다"며 "요즘 시대가 정보화 시대인 만큼 휴대폰과 인터넷을 통해 메모와 스크랩을 습관화해 글감도 늘리고 자신의 생각을 재빠르게 정리하는 게 좋을 것 같다"며 메모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성철 기자 ercast@hansung.ac.kr

■ 교환학생 정보

미국, 어디까지 가봤니?

-편집자 주-
한성대신문에서는 이번 학기 동안 외국에 교환학생으로 나가 있는 학생들이 현장에서 보내오는 생생한 교환학생 수기를 실었습니다. 뉴질랜드의 Unitec과 중국 북경의 화북전력대학교 교환학생 수기에 이어 마지막으로 지난 호와 이번호에는 미국 Northern Kentucky University에서 공부하는 학생의 글을 실었습니다.

교환학생이라는 단어를 들으면 무엇이 가장 먼저 머릿속에 떠오르나요? 외국인 친구 사귀기? 영어 공부? 저의 경우는 여행이었습다. 미국으로 교환학생을 가는 게 확정되었을 때 저는 무엇보다도 미국 이곳저곳을 여행할 생각에 마음이 들었습니다.

미국은 52개주로 이루어진 광대한 나라이기 때문에 각 주마다 기후도 다르고 자연환경도 다양합니다. 제가 있는 켄터키주 하나가 우리가 사는 대한민국보다 조금 더 크다고 하니 미국이 얼마나 큰지 실감이 나시나요? 이렇게 영토가 넓다보니 미국 북부에서는 눈이 내릴 때, 미국 최남단 플로리다는 물놀이하는 사람들로 북적거리는 등 너무나 다양한 기후를 가지고 있습니다. 미국에 와서 제가 처음으로 여행한 곳은 미국 북동부에 위치한 시카고입니다. 시카고는 미국 제 2의 대도시로서 건축의 도시답게 유명한 건축물들이 도시

곳곳에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있는 켄터키에서는 5시간 정도가 걸리는 비교적 가까운 거리에 위치하고 있어 많은 학생들이 방학이나 휴일을 맞아 방문하곤 합니다. 또한 'Windy City'라는 별명답게 바람이 많이 부는 걸로 유명합니다. 저의 두 번째 여행은 미국 북부와 서부로의 긴 여행이었습니다. 19명의 학생들이 2대의 차에 나눠 타고 3주 동안 미국 곳곳을 둘러보았습니다. 시애틀, L.A, 라스베이거스, 그랜드 캐년 등 미국의 유명한 도시들을 여행하며 좋은 추억을 쌓았습니다. 미국 북부 Yellowstone National Park를 지난 때는 5월 중순이었는데도 불구하고 눈이 내려 추운 날씨에 모두 떨릴 뻔해서도 눈싸움을 하며 즐거워했습니다. 하지만 눈 때문에 도로가 막혀 추운 차 안에서 모두가 떨릴 뻔해 새우잠을 자기도 했습니다. Yellow stone park에서 다른 곳으로 이동하는 중에는 들소 페

가 도로를 점령하는 바람에 한 시간 넘게 차 안에서 기다린 적도 있습니다. 이런 경험을 해본 적이 없어 황당했지만 잠시 휴식을 취하는 마음으로 지나가는 들소 떼를 구경한 일은 평생 잊지 못할 광경이었습니다.

들소 외에도 차를 타고 이동하다 보면 사슴, 너구리, 스컹크 등 다양한 야생 동물들이 도로 위로 뛰어 들어 위험한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한밤 중 산에서 운전하다가 사슴 한 마리가 갑자기 나타나는 바람에 모두 깜짝 놀라 어안이 병해진 적도 있고, 차에 치어 도로 위에 누워있는 동물 시체를 보는 일은 매우 허다합니다. 시카고와 미국 서부 여행 외에도 뉴욕, 보스턴, 나이아가라 폭포 등 미국인보다 더 많은 곳을 여행하며 잊지 못할 추억을 많이 만들었습니다. 교환학생을 가게 된다면 여행을 통해 다양한 미국을 체험해 보는 건 어떤가요?

정민주(영어영문) 4

■ 한성 정보 홍신소

작가로의 등단, 한성문학상에서

Q '한성문학상'의 취지와 역사가 궁금합니다.

성연욱(지정 1)의 질문

A '한성문학상'은 1986년 1회를 시작으로 올해 25회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취지는 우리 학교 학생들의 창작의욕을 고취하기 위한 것입니다.

'한성문학상'은 '우리학교 학생들의 창의력을 고취시키고 한성문화 창달의 선도적 역할을 하기 위해'라는 취지로 한성대신문사에서 1986년 1회를 시작해 현재 25회까지 시와 소설을 공모하여 수상하는 행사다.

1986년 처음 한성문학상이란 이름으로 ▲ 시 ▲ 단편소설(외국 포함) ▲ 평론을 공모하였고 이듬해 학술상을 포함해 '한성문화상'이란 이름으로 시행하다가 2000년부터는 시와 소설만을 대상으로 공모하면서 '한성문학상'이란 이름으로 자리잡았다.

심사위원으로는 시인 문태준·오규원·황동규·박재삼·최동호·소설가 이재하·김남일·전성국



등과 우리학교 한국어문학부의 이장숙·박호영·김동환 교수 등이 참여해 학생들의 작품을 평가하고 심사평을 통해 공모자들이 나아갈 방향을 조언했다.

25회를 맞이한 한성문학상에는 긴 역사에 걸맞게 많은 사연이 있다. 응모작품이 일정 수준에 이르지 못해서 당선작을 내지 못한 것 당선작으로 뽑혔으나 나중에 표절이 밝혀져 당선 취소된 경우, 또 더 많은 학생들의 응모를 유도하기 위해 수필과 희곡을 공모 대상으로 하였으나 한 해에만 선정하고 폐지

된 경우 등 사연이 많다. 이런 사연에도 불구하고 시와 소설은 꾸준하게 많은 학생들이 응모했고 그 수준은 기성문단에 내놓아도 손색이 없는 작품들도 있었다.

올해 25회 한성문학상의 단대별 참가 비율은 인문대 55.55%, 사회과대학 17.77%, 공과대 15.55%, 예술대 11.11%였다. 인문대의 비율이 많으나 공과대와 예술대의 비율이 적지 않은 것으로 보아 전공을 뛰어 넘어 학생들의 창작에 대한 열정을 확인해 볼 수 있는 자리였다.

이성철 기자 ercast@hansung.ac.kr

English Honors Program

www.hansung.ac.kr/~ecprogram

영어우수인재양성프로그램

한성대학교 교양영어교육과정 위원회에서는 English Honors Program을 시행합니다. 본 프로그램은 본교 재학생 중에서 영어 우수자를 선발하여 집중 교육 과정을 통해서 한성대학교와 나아가 대한민국을 이끌어 갈 영어 인재 양성을 목표로 합니다. 비 학점 과정이며 수강료는 전액 무료입니다. 재학생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교육 내용	iBT 토목	1주당 3시간(년 24주)	토목 전문 강사	25명 4개 반
	그룹 스피크	1주당 2시간(년 24주)	한성대 외국인 교수	5명 20개 팀
	영어몰입캠프	방학 중 1주일(년 2회)	한성대 외국인 교수	25명 4개 반

교육 내용: 1년 (2011년 3월 ~2012년 2월)
교육 대상: 본교 재학생 2~4학년 100명 (2011년 3월 기준)
선발 방법: 필답 고사 (2월 중순 예정)

- 특전
- 단기 어학 연수 대상 선발 시 우선권 부여 (필리핀, 말레이시아)
 - 교환학생 및 해외 연수 학생 선발 시 우선권 부여
 - English Honors Program 수료증 발급과 성적표에 명시

문의처 | 교양영어실 760-5935

교양영어 교육과정 위원회

이유없는 따돌림과 폄박에 서러운 아이들

다문화사회에 대한 우리들의 인식부재

다문화 사회는 이미 거대한 기세로 한국 사회에 유입되고 있다. 개별적인 사회구성원들의 호불호와 상관없이 외국에서 들어온 결혼 이민자와 유학생들이 끊임없이 늘고 있다. 예전에는 '단일민족'이 한국을 대표하는 특징 중 하나였지만 이제는 본격적인 다인종, 다문화국가로 변화하고 있다.

지난해 말 법무부의 통계에 따르면 우리나라에 체류하는 외국인인 114만 명에 달한다. 전체 인구의 2%를 넘는 수치다. 이 중에서 결혼을 통해 입국한 사람이 16만 명으로 한국인과 외국인 사이에서 태어난 자녀들이 12만 명이다.

시내에 나가보면 벌써 크리스마스와 연말을 맞이하는 분위기가 물씬 풍긴다. 하지만 이들의 겨울은 시내처럼 밝고 따뜻하지 않다.

한국인과 외국인 사이에서 태어나 다문화 가정에서 자라는 아이들은 한국국적을 가지기 때문에 법적으로는 한국인 아동과 똑같은 권리를 누리지만 단지 피부색과 생김새가 다르다는 이유로 친구와 어울리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이현정(한국다문화연구소)소장은 "다문화 사회로 변모되면서 결혼이주여성들이 늘었지만 이들자녀들의 학교생활은 급우 간의 따돌림, 평균적인 학습부진이 문제로 제기된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결혼이주여성들은 한국의 언어와 문화를 모른 채 준비가 안 된 결혼을 하는 경우가 많아 그 여파가 아이들에게 미치게 된다"며 "아이들은 엄마 곁에 안겨 목소리를 들으면서 웅얼거림이 시작되기



때문에 어눌한 한국어와 외국어를 혼용하는 엄마로 인해 이들도 혼란을 느끼게 된다"고 설명했다. 이렇게 자라는 다문화자녀들은 또래 아이들보다 말문이 늦게 열리는 경우가 많아 주위에서 따돌림과 무시를 당하기도 한다.

이 소장은 "한국의 초등학교는 '일마속제'라고 불릴 정도로 치맛바람이 거세다. 하지만 한국어가 미숙한 결혼이주여성들은 학교에서 나오는 유인물부터 읽지 못해 아이들의 과제와 준비물 등을 도와주기가 힘들다"며 "이러한 가정에서 자라는 아동들은 학습부진과 학습도태를 겪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처럼 학교에 다니고 있는 다문화 가정 아동들은 한국어 습득능력 저하로 인한 학습부진에 시달리고 있다. 또 외모 차이 등으로 또래 아이들로부터 소외되기도 하고, 빈곤과 부모의 이혼 등으로 방치돼 사회구성원으로 살아가고자 하는 원동력을 상실하는 경우도 있다.

이러한 악순환 속에서 학년이 올라가면서 높은 교육열을 자랑하는 대한민국 교육에 적응하지 못하고 학교를 그만두는 경우도 많다. 이러한 다문화 아이들을 위해 이현정 소장은 지난 해 7월부터 이들이 가진 장점과 강점을 발견하기 위해서 함께 노래를 부르는

'메인보우 합창단'을 운영하고 있다. 그는 "다문화 자녀들은 사람들의 편견으로 받은 상처로 태생적인 분노를 느끼는 경우가 많다"며 "아이들은 억눌린 감정의 표출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합창단 아이들은 무대에서 박수를 받으면서 큰 꿈을 가지게 되어 희망찬 삶을 꿈꾼다. 우울한 얼굴의 아이들이 밝아지는 것을 볼 때 가장 뿌듯하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꿈을 가진 아이들에 대한 사람들의 시선은 그리 밝지 않다. 이현정 소장은 "다문화 아이들끼리는 같은 공감대를 형성하며 잘 통한다. 하지만 우리들은 얼굴이 새까만 아이들과 악수하는 것을 꺼려할 정도로 이들에 대한 이해도가 낮다. 또 이들을 가르치는 교사도 다문화아동에 대한 의식이 있어야 한다"고 의식의 부재를 지적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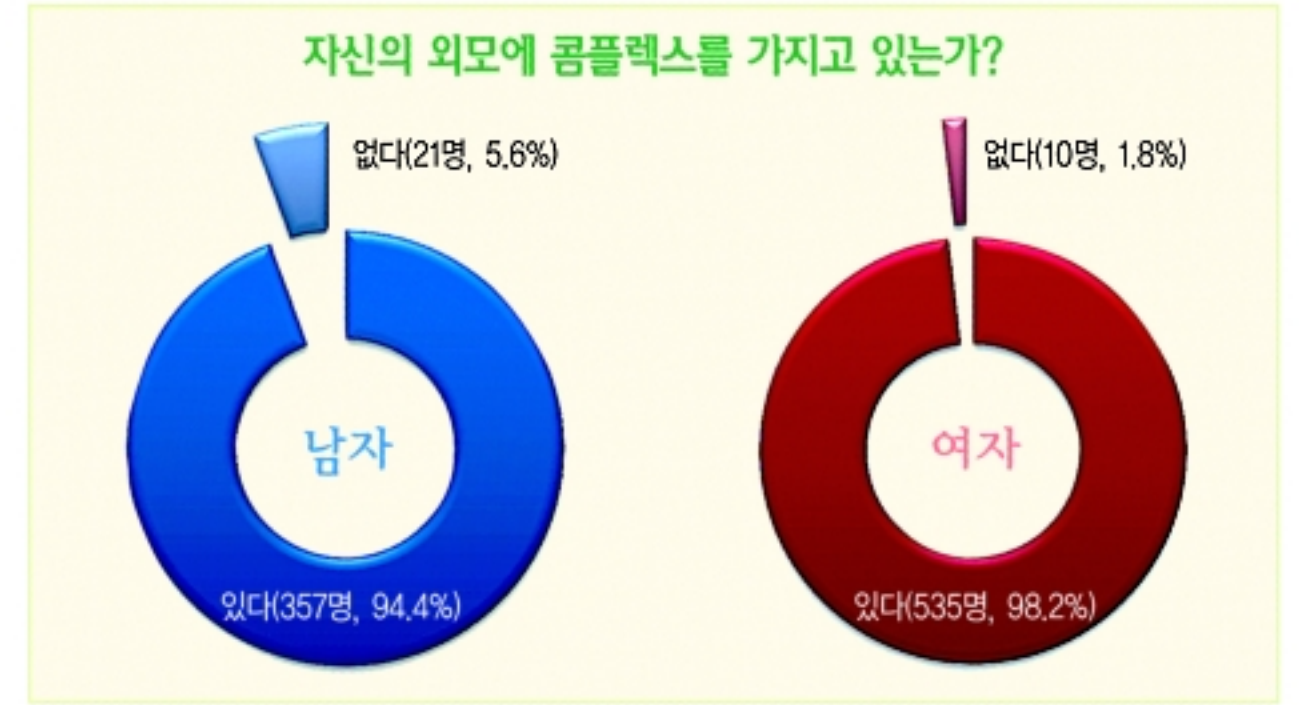
아동권리선언은 '당사국은 아동의 출생 전후를 막론하고 그의 부모의 인종, 피부색, 성별, 언어, 종교, 정치적 또는 민족적, 인종적, 사회적 출신, 재산, 무능력 또는 기타의 신분과 관계없이 적절한 법적 보호를 포함한 특별한 보호와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하지만 한국은 이러한 아동들을 품어줄 수 있는 전문적인 기관이 부재한 상태다. 이 소장은 "다문화 아이들에게 희망과 자신감을 심어줄 수 있는 교육환경 조성과 이들을 보듬어 주어 국가적인 인재로 키울 수 있는 기관이 많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예진 기자 odory11@hansung.ac.kr

통계로 본 한국사회

외모 콤플렉스와 성형, 그리고 취업의 상관관계



대학생들의 96%가 외모에 콤플렉스가 있다고 나타났다. 아르바이트 전문 구인구직 포털 알바몬은 남녀 대학생 923명을 대상으로 '외모 만족도'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만족스럽진 않지만, 불만도 없다'는 질문에 32.7%, ▲'대체로 만족한다'는 질문에 25.6%가 긍정적인 대답을 했다. 반면 ▲'외모에 콤플렉스를 가지고 있다'는 응답은 96.6%가 '그렇다'고 답했다.

설문조사 결과가 말해주듯이 상당수의 대학생들은 성형수술에 대해서도 편대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외모로 인해 성형수술을 고려한 적이 있는지에 대해 43.9%의 대학생이 관심이 있다는 반응을 보였다. 이미 성형수술을 받은 경험이 있는 학생도 전체 응답자의 12.1%다. 한 대학생은 "고등학교 3학년 때 코를 성형했다. 성형 이후 사람들의 반응이 호의적이고 스스로 만족스럽다. 대학 3학년 지금은 성형수술을 했는지도 기억이 잘 나지 않을 정도"라며 성형 만족도를 말했다.

또 다른 구인구직 포털사이트 아르바이트 천국에서 회원 1천 233명을 대상으로 취업성형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필요하다면 해야 한다는 의견이 61%, ▲취업성형은 필요없다는 의견이 31%, ▲취업성형은

필수라는 의견이 8%였다. 단순한 미용목적뿐 아니라 취업을 위한 목적도 빼놓을 수 없는 이유인 셈이다.

반영구 시술과 보톡스를 맞았다는 이유나 (22세, 대학생)은 "외모가 사회생활에 도움이 된다는데 과하지 않으면 해도 나쁘지 않다고 본다. 주변에서 생김새, 코 같은 간단한 성형수술이나 반영구 시술 정도는 많이 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

취업과 외모 바꾸기의 상관관계는 비단 우리나라에서만 화제가 되고 있는 건 아니다. 미국의 시사주간지 '뉴스위크'의 기사에 의하면 인사담당자의 57%는 적재에 적합하지만 매력적이지 않은 지원자는 구직에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본다고 답했다. 또한 68%의 응답자는 취직한 이후에도 외모가 직무평가에 영향을 미친다고 말했다. 지원자를 평가하는 9가지 항목의 중요도에서도 학력(6.8점)보다 외모(7.1)가 더 중요하게 평가됐다. 뉴스위크는 "이러한 결과가 지원자들이 대학 등록금을 성형수술에 투자해야 한다는 뜻은 아니지만 모든 지원자들이 명문대 졸업장을 따려고 노력하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보여준다"고 지적했다.

이상이 기자 sangmi@hansung.ac.kr

잘 빛은 만두 같은 잡지, 헤드에이크

대학생의 머리를 아프게 하는 모든 것을 해결해 드립니다

제일 처음으로 우리에게 '사회'가 무엇인지 물어보는 것은 무엇일까? 갖 고등학교를 졸업하여 '사회'라는 문턱에 걸처지는 곳, 바로 그곳은 대학이 아닐까 생각한다. 대학을 다니며 새로운 사람과 사귀고 적응을 하며 지내는 것이 우리에게 있어 첫 사회화의 대면이다. 이렇게 새로운 인생을 경험하는 시점에서 우리 많은 궁금증이 생기게 된다. 사소한 질문에서부터 진중한 질문까지. 대개 우리는 책이나 지인들을 통해 이러한 고민 혹은 궁금증의 답을 찾게 된다. 하지만 도저히 답을 찾을 수 없을 때는 어떻게 해야 할까?

우리의 모든 궁금증을 풀어줄만한 친구들이 있다. 골치 아픈 질문들을 피하지 말고 헤드에이크(Headache)잡지사에 보내면 우리의 질문을 함께 해결해 줄 것이다. 지난해 11월 19일 창간된 이 잡지는 이름 그대로 우리의 머리를 아프게 만드는 질문들에 대한 여러 해결책들을 찾아보고자 하는 취지로 만들어

졌다. 이런 질문 잡지를 만들게 된 이유는 무엇일까?

김가영 편집팀원은 "헤드에이크는 너무 궁금한 게 많고 골치 아픈 게 많은 친구들이 커피숍에 모여 이야기를 하다 만들게 되었다. 어떤 잡지를 만들까 고민을 하다가 매 호 대학 혹은 사회에서 겪게 되는 궁금증에 대한 답을 찾고자 하는 일종의 질문잡지"라며 "사람들을 골치 아프게 하는 문제를 서로 나누고, 서로 위로하여 문제에 대한 한 가지 방법 뿐만이 아닌 여러 갈래의 답들을 찾길 원한다.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속이 꽉 차고 잘 빛은 만두 같은 잡지를 만들고 싶다"고 덧붙였다.

헤드에이크는 매 호 그 질문을 선택하게 된 이유가 쓰이는 '편집장의 글'과 20대를 이미지로 표현한 'Image Pill', 매 호 질문에 어울리는 작가 인터뷰 'Headache People', 질문에 대한 에디터들의 답 'The Comment', 배중수 작가의 일러스트레이터와 윤희은 작

가의 만화 코너 등이 있다.

헤드에이크는 편집장 정지원씨, 편집팀 김가영·이선우씨, 에디터 소영은·김미리·이호산씨, 편집 디자이너 양민영씨와 글을 써주는 여러 필진들로 이루어져있다. 이 중에는 학생인 팀원도 있다. 김가영 편집팀원은 "학업을 병행하며 일을 하기가 힘들 때도 있다. 하지만 재밌게 읽었다는 피드백을 들으며 견뎌낸다. 여러 사람들로부터 듣는 진심어린 충고와 관심은 우리의 보람이다"고 말했다.

잡지는 흥대 상상마당, 유이 마인드, 대학로 이음책방, 더북 소사이어티, 아트선재센터 The Books, 교보문고와 헤드에이크 홈페이지(홈페이지를 통해 구입할 경우 무료배송)를 통해 구입할 수 있다. 세 번째 호는 12월 말에 나올 예정이다.

김보현 기자 annyung17@hansung.ac.kr



낙산만평

장미정(애니제움 4)

망년회, 이제 이웃과 술잔 대신 사랑을 나누세요

새 한마리만 그려넣으면,
남은 예석 모두가 하늘이여라 -이외수-

상식을 뒤바꾸는 총학생회. 함께 하십시오-
010-2402-2244

안녕하십니까. 종건동 대표 김중섭입니다.
내년도 총학생회를 함께 준비하고 싶으신 '총학생회 전선 모임' 행사를 모집합니다.
내년에 준비할 총학생회란 개념의 운영방식과 다르게 학생회장, 부학생회장, 총장 특주 PD(project director)로 불러지게 됩니다. 즉 학생회비 재원을 학교 밑에서 학생들이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아니라 각자가 많은 사명을 PD로서라 견장한다나 책임을 가지고 업무를 수행하기 때문에 본인의 역량과 리더십을 근사하게 발휘하게 됩니다. 자신의 역량을 증명에서 불러드릴 분이 계시다면 연락주세요 감사드립니다.

2010. 11. 20 김중섭

낙메에서 작성자 '김중섭'을 검색하시면 종건동에 대한 자세한 Q&A를 보실 수 있습니다.

제25회 한성문학상

열쇠

1
아버지가 죽었다. 아무것도 남긴 것 없이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았던 사람인 것처럼 사라졌다. 이 세상에 마지막 남은 혈육의 죽음은, 그 혈육이 어떤 사람이었던 간에 슬프게 느껴지는 것이다. 아버지 때문에 슬퍼할 일은 절대 없을 것이라 생각했었는데, 그래도 조금, 아주 조금 슬펐다. 아버지의 죽음을 들은 것은 다섯 전이었다. 죽음을 듣고, 놀라고, 장례식을 진행하고 지금 여기 앉아 사람들을 보며 담배를 피우고 있자니 온갖 생각이 다 든다.

아버지와 처음부터 사이가 좋지 않은 것은 아니었다. 라고 회고하고 싶지만 우리는 처음부터 엉망이었다. 뼈저거렸다. 마찰이 있었다. 라고 고상하게 표현하고 싶지만 처음부터 그런 건 없었다. 그저 무관심의 연속이었다. 한집에 살면서도 서로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는 알지 못했다. 아버지는 나를 제지하지도 이끌어주지도 않았다. 처음에는 나쁜 짓도 하고 나쁜 말도 내뱉고 반항을 해 보았지만, 그럴수록 무관심에 대한 상처가 커지고 말아, 금세 그만두었다. 내가 관심을 받으려 애쓸수록 아버지의 무관심에, 상처받는 것은 나의 어린 마음 뿐이었다.

삼일동안 밖을 나돌다 집에 들어왔을 때 집안에는 사람들이 잔뜩 있었다. 모르는 사람들이었다. 처음 보는 사람들이 나의, 아버지의 집에 있었다. 아버지가 죽었다고 했다. 계단에서 굴렀는지, 지나가는 사람들이 발견했다고 했다. 너무 슬픈 최후였다. 아니면 너무 평범한 최후인지도 모른다. 어쨌든 최후, 라는 것은 분명했다. 아버지의 죽음을 전해주는 사람도 모르는 사람이었다. 누군지도 모르는 사람들이 잔뜩, 집에 있었다.

2
장례식은 기억이 나지 않을 정도로 빠르게 흘러갔다. 그저 앉아만 있었던 것 같다. 동네사람들이나 사회복지사라는 사람들이 이런 저런 일들을 도맡아서 해주었다. 나는 이들을 모른다. 이들도 나를 모른다. 심지어 아버지에게 아들이 있다는 사실을 처음 안 사람들이 대다수인 것 같았다. 그들의 눈에는 자신의 아버지를 방치, 한 막대한 망나니의 모습만 비치고 있는 것 같았다. 내가 아버지와 따로 살았던 것도 아니고, 어떻게 이 많은 사람들이 아버지와 교류하는 동안 내가 모를 수 있었는지 이해가 되지 않았다. 아버지를 위해 울어줄 정도의 정이 그들에게 있다는 사실도 놀라웠다.

아버지는 죽기 전 아버지의 집도 그 안의 물건들도 이들에게 알린 듯했다. 그들은 무슨 생각을 하는지 모르겠는 형식적인 눈빛으로 힘드셨어요, 뭐든지 부탁하세요, 하는 이상한 말들을 나에게 건넸다. 정말 걱정되는데, 걱정을 어떻게 표현해야 할지 모르겠다는 표정이었다. 눈에는 아무 것도 담지 않고 있다. 의무적인 위로와 의무적인 걱정. 모르는 사람들에게 받을 위로도 간널 부탁도 나에게서 없다. 나의 아버지의 죽음에 전혀 모르는 사람들이 나보다도 더 큰 책임감을 갖고 있다는 사실이 이상하다. 적어도 나는 아버지의 죽음에 책임감을 느끼고 있지 않았다.

나는 이방인이었다. 집이래 봤자 이제 곧 할아버지 같은 판자촌에 있는 무너져가는 집이고, 그 안의 물건들도 가끔씩 자신의 본분을 잊는 TV, 오래된 냉장고, 그보다 더 오래된 장롱, 이불, 낡은 옷가지 등이 전부다. 쓸데없는 잡동사니만 남기고 간 늙은이에 대해 마음속에서는 욕을 퍼붓고 있었다. 툭 만연이라도 이들을 위해 남겨주면 좀 좋아? 아버지가 남긴 쓸데없는 잡동사니들은 모두 '다른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 사용될 것이라고 했다. 나보다 더 어려운, 다른 어려운 이웃들이 누군지 궁금했지만 묻지는 않았다. 나의 아버지가 남긴 물건을 왜 '다른 이웃'이 받아야 하는지도 이해되지 않았지만 묻지 않았다. 아버지와 관련된 일에 더 이상 마음을 쓰고 싶지 않았다. 나는 지쳐있었다. 아버지라는 형식적인 이름만 갖고 있을 뿐 그 이름을 가진 자가 해야 할 의무와 책임을 다하지 못한 자를 위해 추모할 마음의 공간이 없었다. 이런 마음의 일면에는 나에게 대한 자학도 들어 있었다. 아들이란 이름만 가졌을 뿐 아무것도 하지 못한 나 자신에 대한, 더 이상 나를 미워했다가는 세상을 살아가야 할 기본조차 사라질 것 같아 나는 고개를 절레절레 저었다.

이곳에 더 이상 있을 필요를 찾지 못하고 돌아서는 나를 사회복지사 여자라 불러 세운다. 아버지의 죽음을 들은 순간부터 이 여자라 부를 일이 많았다. 아버지에게 진심어린 애정을 갖고 보살펴 준 사람이라고 했다. 아버지가 그 애정에 어떻게 보답했는지 문득 궁금해졌다. 그렇게나 무심한 아버지에게 어떻게 애정을 가졌는지도 궁금했다. 아버지에게 사회복지사의 보살핌을 받아야 할 필요성이 있었다는 사실도 의아했다. 사회복지사 여인은 진심으로 슬퍼하는 것처럼 보였다. 내가 아버지의 아들이 아니라 그녀가 아버지의 딸처럼 보였다. 장례식 내내 사람들을 대접하고, 장례식이 끝난 지금도 사람들을 맞이하고 있다. 나는 이 여자를 모른다. 이 여자는, 나를, 알고 있었을까? 혹시 모르니까 아직 가지 마세요. 아버지 물건 정리하는 것도 마저 보셔야죠.

남을 도와야겠다는 부질없는 사명감에 젖은 이 젊은 여자는 나도 보살펴줘야 하는 불쌍한 사람으로 보고 있는 것 같았다. 아버지에게 쏟던 그 애정이 갈 곳을 잃어 대체품으로 나를 선택한 것일까? 혹시 무릎이 무엇인지 물어보고 싶었지만, 나는 묻지 않았다. 아버지가 죽은 것이 슬프지 않았다. 슬펐다. 그 사람은 나에게 준 것이 아무것도 없다. 죽어서도 아무것도 없다. 마지막 말 한마디도 없다.

이미 거절할 순간을 놓쳐 집을 떠나지도 못하고 마당 한 칸에서 담배를 피워 물었다. 아버지는 늦은 밤이면 이 마당에서 담배를 피우곤 했다. 보이는 것이라면 남지한 탄탄한 콘크리트 벽과 시든 화분들뿐인 이 곳에서, 담배를 피우며 그는 무슨 생각을 했을까?
얼마나 생각에 잠겼을까, 사회복지사 여자라 내 어깨를 툭 건드린다.

무슨 생각을 그렇게 하세요. 불려도 모르시구. 몇 번이나 불렀는지, 작게 나를 다그친다. 짜증내지 않으려나? 하는 짓국은 생각이 든다. 그녀는 작은 열쇠를 하나 건네며 말한다. 소중하게 보관되어 있던 열쇠인데, 용도를 알 수가 없네요. 혹시 낫이 익으시나요?

한동안 열쇠를 바라본다. 어디에서나 볼 수 있는 열쇠가 낫이 익을 리가 없다. 보통 열쇠보다는 작은, 사물함을 열 수 있을 만한 열쇠다. 낡은 식당의 화장실과 같은 낡은 침체문도 열 수 있을 것 같다. 작은 열쇠다. 밤금 이 여인이 건넨 말들이 머릿속에서 소용돌이친다. 귀로 들어온 문장들이 뇌 속으로 편입되지 못한 것 같은 기분이었다. 소중? 소중하게? 소중하게 보관? 웃음이 나왔다. 나는 그 노인이든 무언가를 소중하게 여기는 것을 본적이 없다.

3
내 아버지는 말하자면 세상을 부유하는 먼지 같은 존재였다. 하늘을 날아가는 까만 비닐봉지 같기도 했고, 그러다가 나뭇가지에 걸린 비닐봉지 같기도 했다. 아니면 행복한 가족들이 가득 모인 어린이날의 가족공원에서 열리는 축하 행사에서 환호와 함께 하늘로 날아가는 헬륨풍선 같기도 했다. 어쨌든 세상에서 떠있는 존재였다. 그는 미련도, 집착도, 사랑도, 증오도 없는 유령 같았다. 차라리 증오로 가득한 귀신이었던 나에겐 좀 더 나은 기억을 남겼을 지도 모를 거란 생각이 들지만, 그는 그저 회무연 유령이었다. 그가 무엇을 하는지 어떻게 살아왔는지 나는 모른다.

어머니를 기억조차하지 못하는 내게 아버지는 가족의 전부였다. 세상의 전부였고 나의 모든 것이었다. 그러나 아버지는 아니었다. 그에게는 가족이라는 것이 하나의 가치로 자리 잡고 있지 않았다. 그래도 아주 어릴 적에는 그다 나를 귀여워 해주고, 좋은 아빠를 '언기' 하기 위해 노력했던 것 같지만 그마저도 희미하다. 그를 낳아준 부모가 있을까? 과연 그는 나를 낳았을까? 하는 것이 청소년기의 가장 큰 고민이었을 정도로 그는 무심했다. 무심하고 그 무심함으로 인해 잔인했던 그에게는 가족 간의 애뜻함이란 먼 우주의 일인 듯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아는 아버지가 아무 것도 없다는 사실이 쓸쓸했다. 고향은 어디인지, 제일 친한 친구는 누구인지, 부모 그러니까 나의 조부모는 어떤 사람이었는지, 학창 시절에는 어떤 모습이었는지, 어머니와 어떻게 만났는지, 사랑하긴 했는지, 나를 바라볼 때에는 무슨 생각을 하고 있었는지. 아무것도 아는 것이 없었다. 알고 싶어 했을까? 나는, 노력 했을까? 아니, 묻지 않았다. 알고 싶어도 물을 수가 없었다. 묻지 않았다. 무관심한 아버지 따위는 나의 아버지가 아니라 그 스스로를 상처 입히면서 아버지에 대해 무관심했다. 어쩌면 가족 간의 애뜻함을 먼 우주의 일로 여기는 사람은 나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다.

4
어릴 적에는 정말 아버지가 나의 전부라고 생각했다. 달리 나의 것이 없었던 탓이다. 나의 엄마, 나의 가족, 나의 형제, 나의 친구, 나의 집, 나의 방, 나의 보물고, 없었다. 집은 가난했고, 나도 가난했다. 마음도 가난했다. 성격도 가난했고, 배려심도 가난했다. 행복이나 즐거움에는 인색하기만 했다. 나에게 '나의' 라는 소유격을 붙일 수 있는 것은 오로지 아버지뿐이었다. 그나마도 아버지는 '나의' 아버지가 될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달은 후에는 깨진 꿈이 되어 버렸지만 말이다. 아버지를 정말 사랑했던 어린 시절에는 꿀알 예고도 부리고 예쁜 아들이 되기 위해 노력했던 것도 같지만, 지금은 한낱의 꿈에 불과한 희미한 기억들뿐이다.

아버지와 나는 초라한 한옥집에 세를 들어 살았다. 한옥도 양옥도 아닌 기묘한 집이었다. 어디에나 있지만 그 정체를 알 수 없는 집. 단지 기억 속의 그 집은 한옥처럼 기와가 얹어 있었기에 한옥이었나 보다. 하고 추억할 뿐이다. 시멘트로 만들어진 집의 본체, 진짜 기와인지 만져보고 싶게 만드는 플라스틱같은 빨간 지붕 마당도 담벼락도 회색빛의 시멘트였다. 빛이 비치는 한낮에는 그나마 새하얀 느낌을 주는 차가운 벽이었지만, 물을 뿌리면 검은색보

다 검은 회색이 되곤 했다. 아버지와 나는 그 집에 딸린 작은 단칸방에 세를 들어 살았다. 주인집에는 무서운 할머니가 혼자 살았다. 지금 생각해보면 아줌마에 가까운 나이였던 것 같지만 그때에는 무서운 '할머니' 라고 생각했다. 할머니는 항상 귀에 리본을 단 새하얀 마르티즈를 한 팔에 안고 이것 저것 잔소리를 했다. 그나마도 아버지가 컸을 정도로 듣지 않자 결국에는 나에게 퍼부어댔지만 말이다. 할머니가 아무것도 아닌 일로 트집을 잡아 나를 야단치거나 내가 해야 할 의무가 없는 심부름을 시킬 때에도 아버지는 그저 바라만 보고 있었다. 그 무렵에는 아버지가 나의 아버지가 아닐지도 모른다고 생각하기 시작했다.

추석을 하루 앞둔 어느 날이었다. 할머니는 나에게 돈을 쥐여주며 식초를 사오라고 했다. 백 원짜리 하나까지 꼼꼼하게 맞춰 정가만을 쥐여주며 오 본 내로 사와라, 라고 인상을 찌푸리며 말했다. 나는 혹시나 동전을 흘릴까봐 돈이 든 주머니를 잡고 골목을 달렸다. 달리는 동안 주머니가 흔들거려 찢랑떨까봐 참을 수가 없었다. 그저 주머니를 잡고 달렸다. 가게까지 도착하는 내내 혹시라도 할머니가 돈을 탈 뻔했으면 어떻게 해야 하나 하는 걱정뿐이었다. 걱정하는 일은 정말 일어나지 않는 것인지 나는 무사히 식초를 살 수 있었다. 무사히 식초를 사자 늦게 왔다고 혼이 날지도 모른다는 또 다른 걱정이 피어나, 골목길을 다시 뒤었다. 한 팔에는 식초통을 끼고 팔이다. 집에 거의 다 왔을 때, 마음을 너무 놓았던 탓일까, 집 바로 앞에 있는 경사가 있는 모퉁이를 도는 순간 식초는 내 팔에서 빠져나와 맞은편 벽으로 들쭉했다. 펠과 썩그랑이 어둑한 골목을 울렸다. 시름한 식초냄새가 코를 찔렀다. 그 펠과 썩그랑은 집 안까지 들렸는지, 할머니와 열집 할머니와 통장집 할머니와 공터너머 깎았이 심어진 화단이 있는 파란대문의 할머니가 집 앞으로 나왔다. 펠과 썩그랑 때문에 잠시 정신이 떠나있던 내 몸을 할머니가 거세게 흔들었다. 멍한 순간에도 집안에서 분주히 나오는 할머니들의 소리를, 이게 무슨 소리라, 하는 소리를, 슬리퍼를 신는 소리를, 끄는 소리를, 대문을 여는 소리를 듣고 있던 나에게 할머니의 역설 손길은 예상치 못한 것은 아니었다. 하지만 그 광경을 보고 무심히 우리 방문을 열고 들어가는 아버지의 뒷모습은 예상치 못한 것이었다. 할머니에게 강하게 잡힌 어깨의 아픔도 있을 정도의 흥분이었다. 흥내 기운이 솟아들기 시작하는 나를 보고 놀랐는지 할머니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마당에 놓인 평상위에 나를 앉히고 부채질을 해주던 할머니는 내가 울음을 그치지자 다시 정가를 쥐여주며 식초를 사오너라, 하셨다. 이번에는 휘지 않았다. 우느라고 숨이 찰 때 문이다. 팔꼭질할 컵물을 눈물을 아픔을 삼키며 천천히 걸었다. 그때부터였을 것이다. 나는 아버지에게 기대하지 않았고, 더 이상 아버지를 사랑하지도 않았다.

5
사실 아버지가 무언가를 남겼을 것이라 기대는 해본 적도 없다. 그럼 리가 없다는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이었다. 그래도 막상 열쇠를 받아보니, 이것이 어떤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는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 처음부터 아무것도 없었다 아무것도 기대하지 않겠지만, 열쇠라는 물건이 손 안에 들어오니, 그 열쇠가 열 수 있는 그 무언가가 궁금해지기 시작했다. 이 열쇠는 어쩌면 커다란 은행에 비밀 금고 열쇠 인지도 모른다. 그 금고 안에는 꽤 많은 현금이 나와 총생의 비밀이 담긴 편지와 그 비밀을 증거 하는 물건이 들어 있다. 나는 그 물건을 들고 커다란 회사에 찾아가다. 로비에서 그 물건을 보여준다. 대기업의 회장은 버선발로 나와 나를 맞으며, 내 너를 찾고 있었느니라, 라고 말하면서 눈물을 흘린다. 여기까지 생각했을 때 우리나라에도 개인용 비밀금고에 있는 은행이 있는지를 내가 정확히 알지 못한다는 사실과 내 상상의 내용이 유리가 주몽을 찾아가는 내용과 거의 흡사하다는 것을 깨닫고 담배에 불을 붙인다. 담배를 한 모금 깊게 들이 마시고 깊게 내뿜는다. 이 열쇠는 어쩌면 항구에 있는 커다란 창고의 열쇠인지도 모른다. 그 안에는 아버지가 나

를 위해 남겨둔... 아니다. 이젠 미국 수사드라마 어디선가 본 내용이 다. 그렇다면 이 열쇠는 뭘까?

다시 담배를 깊게 들이 마시고 내뿜는다. 어쩌면 이 열쇠는 호그와트로 가는 문을 열 수 있을 지도 모른다. 8과 45같은 플랫폼의 열쇠.

나는 이 열쇠 때문에 미쳐가고 있었다. 아버지의 열쇠는 무언가를 열어아 했다. 그것이 무엇이든 반드시 쓰임이 있어야 했다. 그런 압박이 나를 죄어왔다. 나는 낮이고 밤이고 그 생각에서 벗어날 수 없었다. 땀을 뻘뻘 흘리며 입을 하다가도 문득 주머니에 손을 넣어 작고 차가운 그것을 손끝으로나마 확인해야 했다. 자다가도 문득, 밥을 먹다가도 문득, 확인해야 했다. 이 강박에서 벗어나는 길은 오로지 이 열쇠로 열 수 있는 '문'을 찾는 일 뿐이었다. 열쇠가 존재하니 이 열쇠와 딱 맞는 자물쇠도 존재하는 것이 당연했다. 누가 봐도, 그런 것이 존재해야만 했다. 그래서 나는 그 문을 찾아다니기 시작했다. 낯선 아르바이트를 하고 밤에는 피시방에서 생활하는 것이 인생의 전부였던 나는 돌아다니기 시작했다. 지하철, 필집방, 독서실, 대학교, 길 가의 집들. 아버지가 갈만한 곳부터 절대로 가지 않을 곳까지 뒤지기 시작했다. 사람없이 코인라카같은 곳들부터 시작해서 길을 걷다가 만나는 문이란 문은 모두 열어보고 다녔다. 나는 시간 나는 대로 도시의 방방곡곡을 돌아다녔다. 아버지의 집에서부터 조금씩 범위를 넓혀가며, 마치 어느 분야의 전문가라도 된 듯이 열심히 메모도 하고 지도도 그렸다. 한 번 갔던 곳은 빨간 색으로, 가봐야 할 곳은 파란색으로 꼼꼼하게 점검했다. 하나의 프로젝트를 수행하는 기분이었다. 너무 걸이 피곤에 절은 밤이면 잠이 잘 왔다. 잠이 들기 전에는 내일 해야 할 일, 내일 점검해야 할 곳들을 체크하고 계획을 세웠다. 모든 계획을 숙지하기도 전에 잠이 들었다. 평생을 불면에 시달렸던 나에게도 희한한 일이었다. 그렇지만 잠이 들면서 내가 열쇠의 용도를 찾지 못한 것을 초조해 했는지, 아니면 그저 찾아다니는 것을 즐겨왔는지는 기억나지 않는다.

6
지금 내 안에 남아있는 이 여성은 나에게 열쇠를 건넰 그녀다. 그녀를 처음 본 아버지의 장례식에서는 나는 그녀가 무서웠다. 이런 부류의 인간들이 세상에 존재한다는 것은 익히 알았지만 나의 인생에 엮일 일은 없을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남을 돕기 위해 태어난 것 같은 사람. 남을 도와야만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 좋은 가정에서 사랑받고 자라, 그 사랑을 받은 만큼 세상에 돌려줘야한다고 생각하는 사람. 그런 일방적인 배려심으로 결국은 나를 상처주기가만 했던 그런 부류. 이해하고 싶다고, 듣고 싶다고, 그렇지만 절대, 죽었다 깨어나도, 나를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부류. 한 마디로 '착한 사람' 그런 생각을 하며 그녀의 얼굴을 쳐다보자, 새하얗고 깔끔한 얼굴로 나를 마주한다. 아름다운 얼굴이다. 라고 나는 생각한다. 아름다운 얼굴이 인파가움으로 일그러진다. 나는 나를 향한 새하얀 관심에 어색해졌다. 나를 안타깝게 바라보던 새 하얀 얼굴이 잠시 아래를 내려 보다가 흘러내린 잔머리를 귀 뒤로 넘기며 겸손했다는 듯이 확고한 얼굴로 나를 응시하며 말한다.

왜... 그러는 건가요?
그녀와 나는 지하철역에서 마주했다. 나는 어김없이 비는 시간에 아버지의 열쇠를 시험하고 있는 중이었다. 기계적인 동작으로 라커에 순서대로 열쇠를 꼽아보고 있었다. 이런 열쇠로는 지하철 라커의 문을 열 수 없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 무엇이든 열어보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어서, 열쇠 구멍이 보이던 어디든지 열쇠를 밀어 넣으려고, 제발 들어가 달라고, 제발 열려 달라고, 아버지가 나에게 주려고 했던 것, 내가 가져야만 하는 것이 무엇인지 제발 나에게 알려 달라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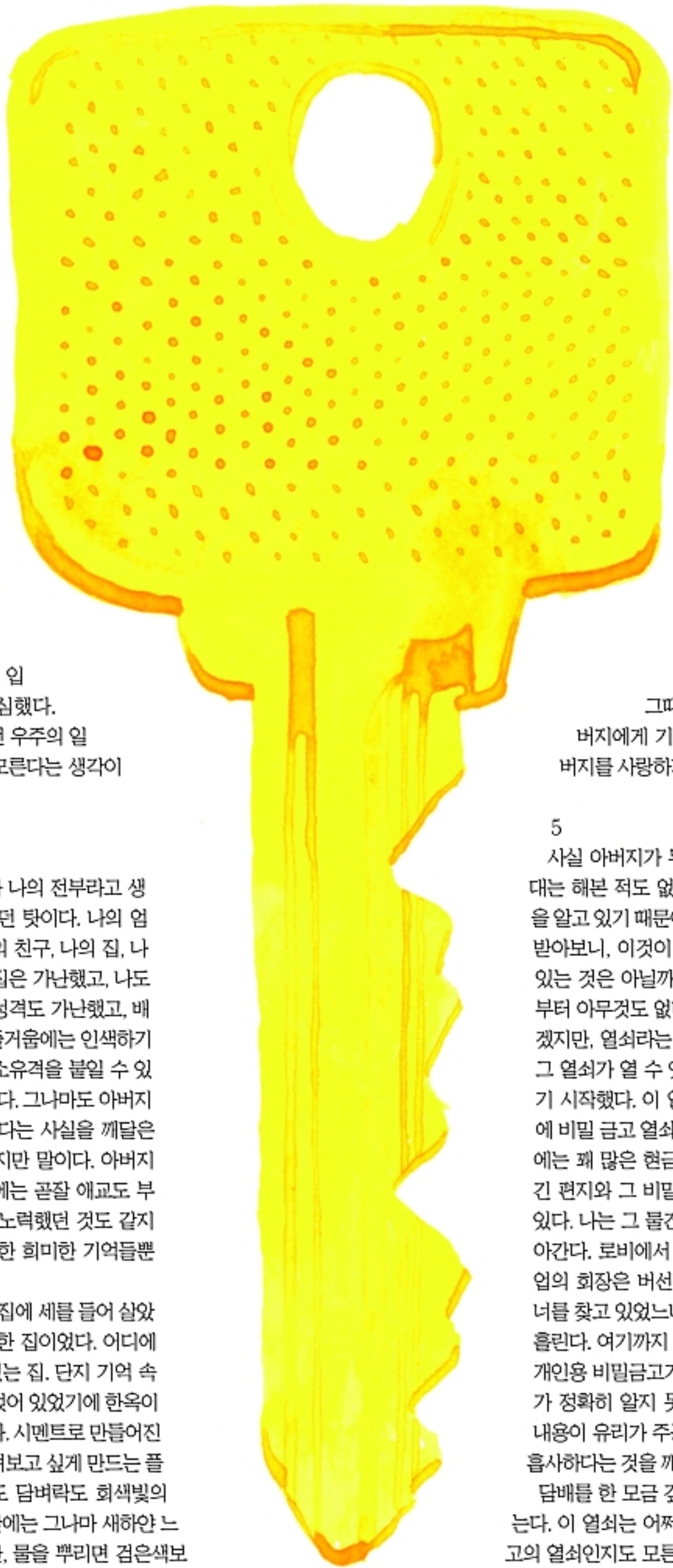
한참을 돌아다니다가 시선이 느껴져 바라본 곳에 그녀가 서있었다. 나와 눈이 마주친 그녀는 내 손안의 열쇠를 쳐다봤다. 마치 바샤는 안 될 것을 본 것처럼, 집요한 시선이었다. 얼굴이 하얗게 질려 열쇠를 바라보면 그녀는 대화를 하기 원했다. 나는 말없이 그녀를 따라 걸었다. 역 안에 있는 프랜차이즈 도넛 집에 앉아 15분 동안 어색하게 앉아있던 그녀가 나에게 처음 건넨 말이 이것이었다. 왜냐고, 왜 그러는 거냐고.

뭐하는 거냐고 묻지 않았다. 뭐하는지 알고 있다는 뜻이었다. 그녀의 손으로 건넨 열쇠로 인해 이곳에 와 있다고 생각하는 것 같았다. 느끼지 않아도 별 책임감을 느끼고 있는 것 같았다. 왜 그랬냐고 묻지 않고 왜 그러는 거냐고 물었다. 아마도 나를 이곳저곳에서 본 듯 했다. 그녀의 말에서 느껴지는 이러한 연속성의 느낌이 그녀가 나를 본 것이 이번 한 번은 아니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었고 나는 이 일을 시작한 이후로 처음, 칭찬했다.

열쇠는 열어야지요. 여는 게 일이지요.
그런 식으로요? 아무데나, 훑아 보면, 열릴까요?
외침에 가득 찬 얼굴로 조심스럽게 말을 건네는 그녀가 말을 고르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 사실은 미친 세계, 굵게 미쳐라, 내 눈앞에서 열릴때지 말고, 라고 말하고 싶을지도.

그 열쇠가 그렇게 중요한 건가요? 저는... 저는 당신이 그저 아버지에게서 무언가를 받았 원한다고 생각했어요. 이렇게 집착할 줄 알았다면 열쇠를 건네주지 않았을 거예요.
묘한 자책이 담긴 목소리에 일순 당황한다. 아버지의 물건을 내가 받는 것에 대해 그녀가 왜 이런 식으로 말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 너무 깊게 들어온다. 참견한다. 오지랖이 넓다. 그냥 나 같은 건 모든 척내버려 두어도, 그녀의 인생에는 하등 잘못 될 일이 없을 텐데, 왜 나에게 신경을 쓰는 것일까요? 싫다. 싫다.

이건 아버지의 물건이예요. 아들의 제가 받는 것이 당연하죠. 그것을 어떻게 쓰시는지는 당신이 참견할 문제가 아니예요.
속해서 말을 던졌다. 정말, 던졌다고 밖에 말할 수 없다. 그녀는 강하게 고개를 흔들며 다시 말을 이었다.



1 소설부문 당선작 1

단지, 받은 것만으로는 만족할 수 없을까요? 열쇠가 반드시 무언가를 열어야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어쩌면 아무것도 아닐 수도 있어요. 그 열쇠는.

확고하기까지 한 속삭임이었다. 그러나,

저는 이 열쇠의 의미를 알아야겠어요. 신경 쓰지 마세요.

어쩌면 나는 이 여자를 상처 입혔는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뒤늦게 들었다. 신경 쓰고 싶어 안달이 난 상대에게 신경 쓰지 말라고 하는 것은 어쩌면 상처 입지도. 나에게 아무런 목적 없는 관심과 걱정을 주는 그녀가 부담스러워, 그냥 상처주고 싶었는지도 모른다. 나한테 신경 끄라고, 상처주고 싶었는지도.

저는 이만 가봐야 하는데.....

찌푸리며 내뺨은 내 얼굴을 한참 바라보던 그녀는 체념의 눈길로 저도 이만..... 이라고 말하며 자리를 떴다. 그녀가 나가는 모습을 보며 나는 그 자리에 한참을 앉아 있었다. 그녀의 말이 머릿속을 맴돈다. 가만히 열쇠를 바라본다. 만지작거리다가 힘을 주어 구부려 보기도 한다. 그러자 문득,

아무것도 열지 못하는 열쇠라는 것이, 가능한 것일까?

아무것도 열지 못하는 열쇠에 대한 미련이 커지는 것을 느꼈다.

7

그런 아버지와 나 사이에 추억은 있다.

중학교에 다니던 무렵에 삼하게 않은 적이 있었다. 사경을 헤맨다는 것이 무엇인지 몸으로 깨달았다. 밤새 열이 나고 온몸이 떨릴 떨렸다. 정신을 차릴 수도 없어 시간이 가는지도 몰랐다. 눈을 뜨는 순간이면 저녀인지 아침인지, 몇 분이 지난건지 몇 시간이 지난건지 알 수 없는 시간들이 계속 되었다. 기본 상으로는 몇 달 동안 앓은 것처럼 느껴졌지만, 깨어나서 헤아려보니 삼일이 지나 있었다. 병원에도 가지 않고 집에 있는 상비약으로 버텼다. 감기 일지도, 어쩌면 불치병 일지도 모른다는 생각들이 계속 해서 머릿속에 맴도는 순간마다 아무래도 좋다는 생각이 들었다. 내가 누워있는 동안, 아버지는 몇 번인가 들어왔을 것이고, 몇 번인가 나를 돌아보았을 테지만 나는 내 손이 어디에 있는지도 모를 정도로 약에, 병에, 잠에 취해있었기 때문에 잘 생각하지 않는다. 그저 내가 그렇게 아파 누워있는 동안, 한 번도 아버지가 나를 돌아보지 않았다고는 생각하고 싶지 않았다. 너무 슬펐으니까.

어느 날 아침 눈을 떴을 때 씻은 듯이 몸이 나아 있었다. 전날 잠에 빠져들 때와는 확연히 다른 몸 상태였다. 삼일동안 이불에만 누워있었던 것이 효과가 있었던 모양이다. 라고 생각하며, 나 자신의 체력에 감탄했다. 이불에 가만히 누워 있다가 맛있는 냄새가 나서 일어나 앉았다. 멍하니 앉아서 냄새가 무슨 냄새일까 고민하고 있는데, 아버지가 문을 열고 나를 쳐다 보았다. 아버지는 일어났으면 밥 먹어라, 라고 말하고는 밥상을 가지고 들어왔다. 밥상 위에는 새하얀 계란 후라이가 없어서 모락모락 김이 나는 김치 볶음밥이 올려져 있었다. 아버지는 밥상을 들여 놓고는 곧 다시 밖으로 나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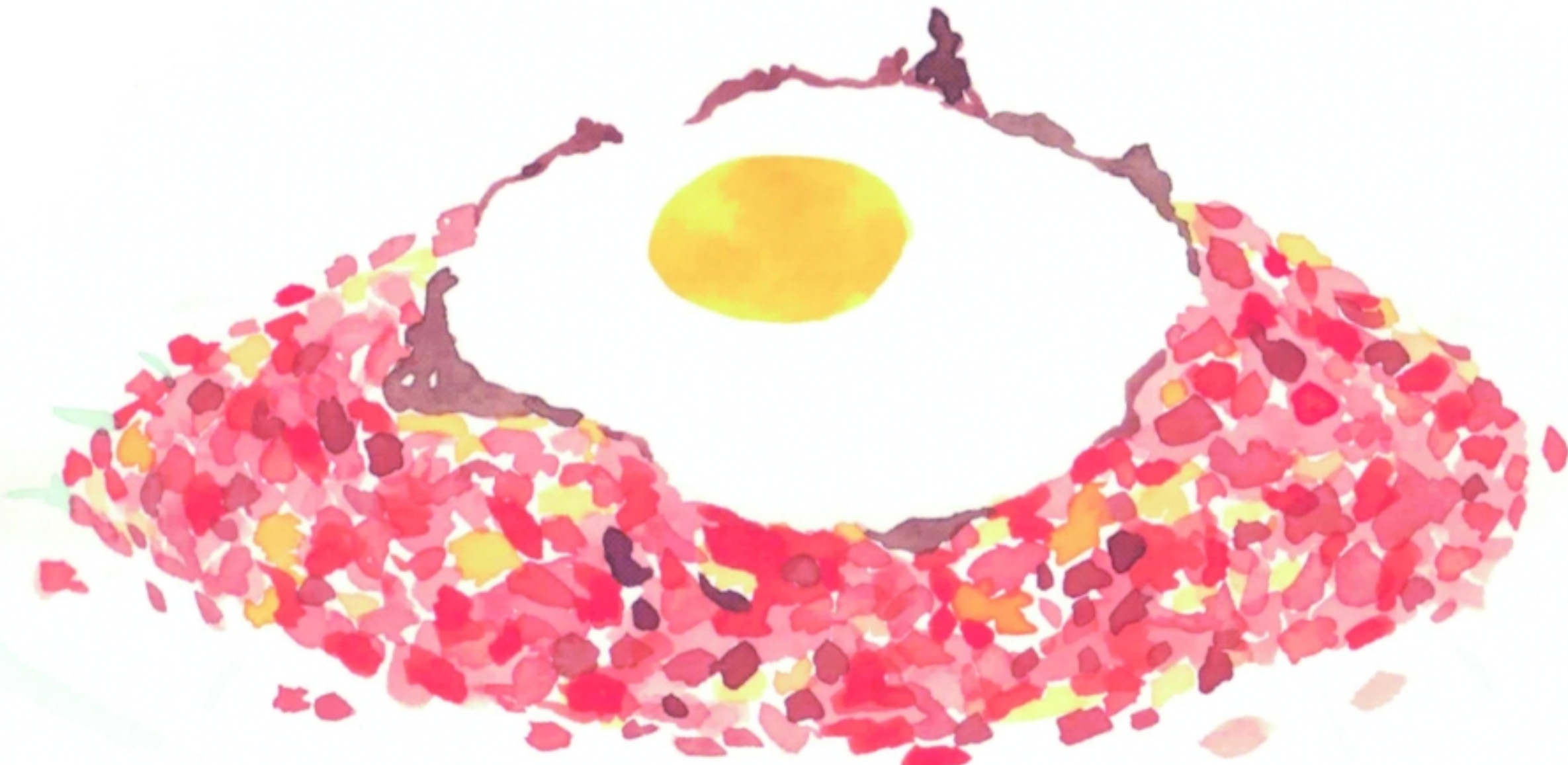
기대하지 못한 상황에 방 쪼 다녀오시라는 이야기도 하지 못한 채로 김치볶음밥을 바라보다가 한 숟갈 떠서 먹었다. 맛있었다. 내 인생에 가장 맛있는 아침밥이었다.

8

지하철역에서 열쇠를 열어보는 실험을 계속하고 있는 중에 누군가가 어깨를 두드렸다. 예상하지 못했지만 놀라지는 않았다. 지하철역이란 그렇다. 누가 말을 걸 것이라고 예상하지는 않지만 그 누가 말을 걸어도 놀라지는 않는, 그야말로 '정거장'이라는 이름에 걸맞은 장소인 것이다. 매일 같은 시간에, 같은 역에서 지하철을 타도 아는 얼굴 한 명을 만나지 못하는, 끊임없이 그 인의 내용물이 갈리는 공간이다. 이런 공간에서는 어떤 것을 해도 눈에 띄지 않지만, 아무것도 안 해도 눈에 띈다.

고개를 돌려 바라본 곳에는 정복 경찰 두 명이 서 있다. 두꺼워 보이

는 재킷을 입고 허리춤에 손을 얹은 자세다. 그 손아래에는 공기총인지 권총인지 총집이 있다. 심폐합니다. 잠시 협조해 주십시오. 여기 사람들이 뭐 찾으러 왔나? 네. 어느 라커 빌렸는데? 물라요. 찾아야만 알 수 있거든요. 나에게 말을 건넌 경찰관이 힐끗 뒤에 있는 경찰에게 눈짓을 한다. 경찰은 난감하다는 듯이 뒤에 있던 경찰이 어깨를 으쓱한다. 신고가 들어와서... 같이 가서 얘기 좀 해야겠는데. 어디를요? 서까지 말이지. 저는 체포 될 만한 짓을 하지 않았는데요? 경찰은 난감하다는 듯이 모자를 벗고 머리를 긁적이며 말한다. 일단 신고가 들어온 이상 얘기는 들어야겠고... 사정청취할지? 그거야. 같이 가서 얘기 좀 하자. 젊은 사람이 이려고 돌아다녀서 신고 당하고 뵈일인데? 나는 순순히 경찰을 따라나섰다. 경찰 아저씨의 얼굴에서 안타까움과 곤혹스러움을 느꼈기 때문이다. 이런 일에 경찰까지 온 걸 보면 누군가가 단단히 따졌던 것 같다. 내 물건을 살펴보니, 내가 봐도 불쌍했다. 아저씨는 내가 그냥 불쌍한 것 같았다. 이런 일로 경찰서까지 데려갈 줄은 몰랐다. 경찰을 따라가는 나를 사람들은 구경이라도 난 듯 쳐다보았다. 경찰은 시민의 친구라는데, 경찰이 일하는 모습은 언제 볼지 모르는 진귀한 구경거리이니 말이다. 경찰서는 따뜻했다. 경찰들도 따뜻했다. 어릴 적 주인공이구나 부처주신 부채질만큼 따뜻했다. 조용했고, 아늑했다. 내 마음도 조용했고 의외로 조금의 통요도 느껴지지 않았다. 담담히 묵묵히 세상을 바라보고 있었다. 재미...라고 할까? 재밌었다. 처음 타본 경찰차도, 처음 본 경찰서도, 경찰차 뒷좌석은 문고리가 없다는 것도, 그래서 밖에서 열 어줘야만 내릴 수 있다는 것도, 도주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라는 것도 처음 알았다. 재밌었다. 내가 모르는 세계, 앞으로도 모를 세계를 잠시 엿보는 기분은 즐겁기만 했다. 긴장으로 두근거리려 할 상황에 이렇게 담담히 즐거운 것은 어쩌면 현실감 없는 현실에 정신이 따라가지



못해서일 것이다.

자, 얘기를 해봅시다. 지금 신고가요. 많이 들어왔어. 인상착의부터... 무섭다네, 다들. 별로 무섭게 생기지도 않았구만.

저는 그저 열쇠는 시험해 보고 있었던 건데요?

그니깐.

뭐가 그니깐, 일까. 둘이 전혀 다른 얘기를 한 것 같은데 '그니깐'이라고 동의하는 경찰의 말에 머리가 어질했다.

보소. 그런 걸 무서워해, 사람들은. 이해하기 힘든 일을 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은 다 적이고, 다 범죄자야. 그래서 자신들도 남들이 이해할만한 행동만 하지. 그게 세상의 '무용'이란거야. 그만해요. 거. 그래서 뭐 열쇠로 열리는 거 찾을 수나 있겠어? 여기서 안되면, 어디까지 가려고? 몇 십 년 동안 열쇠나 훑아보고 다니게? 그래서 뭐가 되겠어? 세상에 이런 일이 나오겠단 소리밖에 더 들겠어? 짚잖아. 좀 더 큰일을 해보라구.

...아무것도 열지 못하는 열쇠가 있다고 생각하세요?

경찰아저씨가 아버지의 열쇠를 위로 던졌다. 낱아채듯 받으면 말했다.

여기 있잖아?

웃음이 나왔다. 있는지도 모르겠는 심정으로부터 끌어오르는 웃음이었다. 존재하는지도 인식하지 못했던 목덜미의 떨림까지 느껴졌다. 하하하하하하하하하. 웃음이 끊이지 않았다. 숨이 막히게 웃자 눈물이 났다. 파출소에 있던 모두는 처음에는 미친놈 쳐다보듯 놀란 눈으로 바라보다가 금세 미소를 지었다. 계속 웃었다. 웃어 본 게 오랜만이었단. 적어도 아버지가 죽은 후에는 미소조차 지어본 적이 없었다. 그리고 그 인젠가에도 이렇게 웃어본 적이 없었다. 숨이 막힐 만큼 웃자, 가슴 속이 뻥 뚫렸다. 시원했다.

심폐했습니다.

그때, 몸조심하고, 잘살아. 다시 보지말자.

인사를 하고 나오는 나의 어깨를 경찰 아저씨가 두드려 주었다. 마지막까지 따뜻한 곳이다. 걸고 싶었다. 마음이 뚫렸다고 해도 생각할 거리는 잔뜩 남아 있었다. 파출소에서 나온 나는 한동안 길을 걸었다. 사회복지사 여자도, 경찰아저씨도, 아무것도 못 여는 열쇠도 있는 거라고 했다. 그거면 됐다. 그거면 된 거겠지?

관다가 보니 어딘지도 모르는 골목길에 와 있었다. 두 시간 이상 걸은 것 같았다. 서울은 굉장히 편리해서 길을 잃어도 제 길을 찾는 것은 집 앞 슈퍼에 가는 것만큼 쉬운 일이다. 이곳 저곳에 있는 표지판이, 내가 지금 어디에 서 있는지 확고하게 알려주고 있었다. 배가 고팠다. 오래 걸어서인지 피곤하기도 했다. 주위를 둘러보다가 '뽕뽕이 아줌마 해장국집'이라는 간판을 보고, 들어갔다. 제대로 된 식사를 하지 못한 지 오래 되었다는 생각이 들었다. 사람다운 생활을 하지 못하니 오래 되었다는 생각이 막연히 들었다. 사람다운 생활이 뭔지는 아직 모르겠지만.

내가 들어간듯 말든 아주머니들은 티비를 보며, 수다를 떨며, 콩나물을 다듬으며 웃고 있었다. 해장국을 달라고 했다. 커다란 뚝배기에 엄청난 양의 해장국이 나왔다. 작은 접시에 깎두기도 그득 담겨 나왔다. 아주머니는 웃으며 수줍은 듯 많이 먹어, 라고 했다. 무심한 것이 아니라 수줍은 것일까? 세상 사람들은 모두 그럴 지도 모른다. 악감정이 있거나 상대가 싫어서가 아니라, 수줍어서, 서로를 상처 입히는 지도 모른다. 이 아줌마는 나를 모르고 나도 이 아줌마를 모른다. 한 숟갈 떠서 먹어 보았다. 맛있었다. 맛있고, 따뜻했다. 두 숟가락 세 숟가락 마구 퍼서 입으로 날랐다. 계속 계속, 이대로도 좋다고, 계속 계속.

<끝>

소설부문 심사평

'열망'을 '형식'으로 담아낼 수련 필요해



한수산 (소설가·세종대 국문과 교수)

활자문화의 위기를 말하는 목소리가 들린 지도 오래고, 한편에서는 e-book을 비롯한 대변혁이 예고되고 있는 오늘, 여전히 고전적인 아취가 서린 정통적인 글쓰기를 통해 자신의 존재와 사회에 대한 인식의 틀을 넓혀가고 있는 문학수련생들의 글을 만나는 것은 그 시작부터 기쁨이자 즐거움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즐거움과 기쁨은 결코 오래 가지 못했습니다.

모든 응모작이 함께 가지고 있는 아쉬움은, 글쓰기에 대한 '열망'을 가지고 있는 이들에게 어떤 수련이나 가르침이 전무했구나 하는 놀라움이었습니다. 응모작들에 가득 차 있는 '꿈'은 느껴지는데 그 꿈을 소설이라는 형식으로 담아내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글쓰기에 대한 수련, 그리고 그것을 해낼 수 있는 환경이나 기회가 절실하다고 느껴집니다. 응모자들의 글쓰기에 대한 꿈을 어떻게든 실현시켜 줄 수 있는 실질적인 배려가 있었으면 합니다.

무엇보다도 전체 응모작이 가지는 문제점은, 약물(約物)이라고 하는 문장부호가 철저히 무시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렇게 글쓰기의 여러 관행들이 지켜지지 않음으로써 그것이 문장력의 미숙으로 드러납니다. 글쓰기에 대한 기초적인 수련이 없이, '그냥 혼자 저 좋아서' 써 놓은 것 같은 작품들이 되어버린 안타까움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완전한 세상'을 비롯하여 '생각도둑'이나 '공격자'는 소설이 가져야 할 스토리텔링에 실패하고 있습니다. 소설은 이야기이며 그 이야기에는 정확한 동기화(motivation)가 있어야 합니다. 또한 문장에 대한 기초적인 훈련이 부족하다 보니 어휘선택에 미숙함을 드러냅니다.

'여름비'는 비의 상징적인 이미지화라는 문학기법을 시도하고는 있지만 작가는 이 소설에서 무엇을 이야기하고 싶었을까 하고 그 작의를 묻게 됩니다.

'왕조현과 팜스', '두 개의 침묵', '소년 윤 씨' 세 작품은 구성도 돋보이고 주제의식도 정확하게 드러나는 작품이었습니다. 그러나 인물의 형상화에 실패하고 있어 안타까웠습니다. 소설이라는 형식을 갖춘 글은 조금 뒤로 미루고 일반적인 글쓰기에 먼저 힘을 들어가시 바랍니다.

당선작 '열쇠'는 무엇보다 구성이 탄탄하고 주인공과 아버지의 관계를 통해 '소외'라고 하는 쉽지 않은 주제를 잘 육화(Incarnation)시키고 있습니다. 문장도 다들 어져 있습니다만 한줄 띄우기의 남발만은 고쳐나가시기 바랍니다. 좋은 작품을 써낼 수 있는 자질이 보여 기뻐했습니다. 좀 더 체계적인 수련을 통해 정진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소설부문 당선소감

두려움 속에서 희망을 보다



정인경 (한국어문 4)

글을 쓰는 것이 두려웠습니다. 비록 나 혼자만 간지랄 글이라고 해도 세상에 완성된 나의 글이 존재한다는 사실 자체가 두려웠습니다. 그리고 내가 쓴 글을 사람들이 읽고 나름대로 해석하고 그것에 대한 평을 받는다는 것이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쓰고 싶은 마음이 한가득 임에도 쓰지 못했습니다.

아직까지도 두렵습니다. 처음 완성한 소설이자 앞으로 저에게 가장 각별한 소설입니다. 한성대학교 한국어문학부에 들어와서 보낸 시간들이 쓸 수 있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글을 쓰는 두려움을 딛고 쓸 수 있게 만들어주시는 한국어문학부의 모든 선생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저는 앞으로도 지금 이 순간을 기억하며 글을 쓸 것입니다.

이제 졸업입니다. 앞으로 어떤 일들이 제 앞에 다가올지 그것 역시 두렵지만 합니다. 졸업을 앞두고 받은 이 상이 저에게 큰 희망과 용기가 되었습니다. 이 글을 뽑아주시는 한성대신문사에도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언제나 저에게 따뜻한 한국어문학부 편집부 사랑합니다.

좋은 사람들을 많이 만났습니다. 그리고 이 글을 읽고 계실 한성대 학생 여러분에게도 감사드립니다. 그래도 읽을 만한 글이었다고 생각해 주시기를 바랄 뿐입니다. 23살, 이제 시작입니다. 앞으로 더 멋진 모습으로 다시 인사하길 기대합니다.

1 시부문 당선작 1

강

옛 이름으로는 호로하*
 굽이굽이 뻗은 강이 시키면 물을 알각
 내뻗는 그곳에 살았습니다
 어린 나는 마루에 엎드려 소꿉놀이 하고
 얇은 벽 바깥에는 키 작은 우리 할머니가
 고리버들 키를 움켜쥐고
 진중일 낱알을 까부릅니다
 북에서 찾아왔다는 바람은
 우리 할머니의 옛된 여동생이
 한숨 쉬일 때 새어나온 아까운 낱숨
 할머니의 어젯죽지로 스뻐다가
 쪽정이 잔뜩 흠쳐가지곤
 날러날러 하늘로 올라갑니다

한 밤 다 되어 고픈 배를 잡으면
 할머니는 군옥수수를 꺼내어 주었는데요
 고결 한 입 베어먹고
 어둑해진 하늘을 올려보면
 날려간 쪽정어들 강물의 모래알 되어
 긴 세월을 흐르는 게 보입니다
 아, 어머니의 젖이 강이 되어
 넘치도록 흐르고
 있었습니다

* 호로하: 임진강, 강의 흐르는 모양이 구비가 많은 호리병 모양이라 하여 이러한 이름을 붙임

한성문학상 삽화 : 호상근(일반대학원 서양화과)

시부문 심사평

쉬우면서 깊이 있는 시 창작을 바라며



박효영 교수
(시인·한국어문학부)

얼마 전 우리 대학의 '저자와의 만남'의 행사로 도
 중환 시인이 초청되어 강연을 하였다. 그는 자신의 시
 를 몇 편 소개하며 그들을 중심으로 시적 발상이 어떻
 게 이루어져 이 시를 썼는가, 사물을 통해 무엇을 느꼈
 는가, 우리 삶의 자세가 어떠해야 하는가를 진지하면
 서도 꾸밈없이 이야기하였다. 강의를 매끄럽게 해서인
 지 그 자리에 참석한 학생들의 반응도 좋았다. 내가 심
 사평의 서두에 도중환 시인의 얘기를 꺼낸 것은 그 시
 인의 시를 왜 많은 사람들이 좋아할까를 생각해 보라
 는 의도에서이다. 도 시인의 시를 읽어본 독자라면 잘
 알겠지만 그의 시 중 이해가 안되는 시는 찾아보기 힘
 들다. 모든 시들이 쉽고 차분하면서도 우리의 가슴에
 와 닿는다. 비단 도중환 시인만이 아니라 독자들을 많
 이 확보하고 있는 김용택, 안도현, 정호승 같은 시인들의
 시를 읽어봐도 그렇다. 그들의 공통점은 서정적이

고 쉬우면서도 무언가 우리에게 깨달음을 준다는 것
이다.

이번 응모작을 읽으면서 나는 시를 쓰고자 하는 학
 생들이 우선 먼저 해야 할 일은 그들의 작시 태도를
 본받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했다. 대부분의 학생
 들의 시가 한 마디로 무슨 얘기를 하는 것인지 너무
 어렵고 이해가 안된다. 시 연구를 사신여년 한 사람이
 이렇게 느꼈다면 다른 독자들은 말해 무엇할 것인가.
 이것은 이번 응모자에 한한 얘기는 아니다. 전반적으
 로 시를 쓰고자 하는 학생들의 경향이 그렇다. 이렇게
 된 원인으로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시 쓰는 것을 너
 무 쉽게 생각한 결과가 아닌가 한다. 시어 하나를 선택
 함에 있어서도 최적의 장소에 최선의 말이어야 하는
 고민을 안고 있어야 하는데, 벚두리나 푸념 하듯 감정
 의 배설을 하기에 그런 시답지 않은 시가 나오는 것
 같다. 앞서 열거한 시인들의 시를 많이 읽고 그들이 한
 편의 시를 어떻게 창작했나를 살펴보기를 바란다.

이번 한성문학상 시부문의 당선작은 김선영의 「강」
 으로 한다. 심사자의 고민 없이 당선작을 내게 되었을
 을 밝힌다. 그것은 당선작이 다른 학생들의 작품들에
 비해 월등히 우수했기 때문이다. 이 시는 호로하(임진
 강)를 끼고 산 유년의 추억을 할머니를 통해 풀어내면
 서, 할머니가 지닌 이산가족의 아픔까지도 '쪽정이'
 의 상징을 통해 차분히 부각시키고 있는, 당선작으로
 전혀 손색이 없는 작품이다. 물론 후반부에 시적 긴장
 이 풀어지는 부분이 없는 바 아니지만, 좀 더 시적 기
 량을 키운다면 앞으로 좋은 시를 쓸 수 있을 것 같다.
 본발을 바란다.

시부문 당선소감

조각모음을 추억하는 행복한 나날들



김선영 (한국어문 2)

금만 뜯어보면 너무나 행복하게 반짝이는 사건들의
 조각모음을 읽니다. 이 감사한 기억들을 추억하기 위해,
 그리고 제 안에 있는 이름 모를 그것들을 세상과 소통
 하기 위해 저는 서투른 연필을 잡아봅니다.

'한성문학상'의 당선 소식을 들었을 때, 저는 제가
 가르치고 있던 어린아이를 다짜고짜 꼭 끌어안아버
 렸습니다. 너무 놀랍고 기뻐서요. 영문도 모르고 제게
 안겼던 아이는 무슨 일인지도 모르면서 방긋방긋 웃
 어주었습니다. 포근했습니다. 작은 아이의 품과 그 무
 구한 미소가, 이렇게 사랑스러운 사람들 덕분에 울
 겨울은 유난히도 따뜻합니다.

작년 봄, 어리바리 신입생 시절 우연히 문학을 사
 랑하고 글을 사랑하는 사람들을 만나고, 그 해 가을
 에는 아무것도 모르면서 일단 연필부터 들었습니다.
 한국어문학부 선배님들께 먼저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아직 제가 많이 부족하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관심 있게 지켜봐주시고 때로는 채
 썬질하며 도와주신 '이무기' 선배님들, 많은 격려를
 해준 동기들과 후배들도, 정말 감사합니다. 모두 고맙
 습니다. 이렇게 소중한 인연들이 있어 저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저요, 오늘은 일주일에 단 하루 있는 휴일이라 늘어
 지게 늦잠을 자고, 늦은 아침을 혼자 차려먹으며 드라
 마 재방송을 보고, 도서관에 갔다가, 시내에 가서 좀
 돌아다니기도 하다가, 초등학교 동생과 자전거 타
 는 연습을 하고 지금은 이렇게 컴퓨터 앞에 앉아 수상
 소감문이란 것을 쓰고 있습니다. 오늘이라고 해서 뭐
 특별한 날일까요, 모든 이의 매일매일은 평범하고 흔
 한 일의 연속입니다. 하지만 나와 여러분의 하루는 조

한성대학교 평생교육원 자격증 과정 수강생 모집 안내

1기 미술심리지도사 - 2학기 (대학부설평생교육원협의회)

- 교육 소개** 본 과정은 다양한 미술매체의 자유적 숙성의 이해와 창의적 미술 창작 과정을 통하여 내담자의 심리적 정서적 갈등을 완화시켜 원만하고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돕는 미술심리지도사기증의 미술치료사 또는 미술심리상담가를 양성하기 위해 개설된 과정입니다.
- 교육 내용** 미술치료의 이론적 접근 방법론, 상담기법, 미술치료 사례 세미나
- 교육 기간** 2010.12.27 ~ 2011.04.05
- 교육 시간** 18:30~21:30 (1학기 15주씩 총90시간)
- 수강료** 550,000원
- 강사 소개** 박신자, 최종일, 박윤미, 탐티칭

한자 2급 자격증 준비반 (월 / 수)

- 교육 소개** 국가공인 한자 2급 자격증 취득을 위한 한자교육
- 교육 내용** 한자의 기초 배우기 배우기 시험에 나올 2000한자 학습,예상문제와 기출문제 풀이
- 교육 기간** 2011.01.03 ~ 2011.02.23
- 교육 시간** 월/수 10:00 ~ 13:30
- 수강료** 100,000원
- 강사 소개** 장동영 (한성대학교 한자 강의, 서울을 아카데미 한문과 강사)

2기 미술심리지도사 - 1학기 (대학부설평생교육원협의회)

- 교육 소개** 국내 컬러리스트 자격증 취득과 더불어 실무에서 요구하는 전문 컬러리스트를 양성하는 과정입니다. 과정과 더불어 나만의 컬러 포트폴리오를 완성하실 수 있습니다.
- 교육 내용** 컬러리스트 필기시험 합격 대비 기초 색채학 이론 강의 및 실습
- 교육 기간** 2010.01.04 ~ 2011.03.29
- 교육 시간** 방학중 - 화요일 오전 11:30 ~ 02:30
개강후 - 화요일 오후 06:00 ~ 09:00
- 수강료** 400,000원
- 강사 소개** 김라미 (PCC 컬러리스트 대표)

실내건축 산업기사

- 교육 소개** 실내건축분야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을 위한 기능적인 도면 드로잉 과정입니다.
- 교육 내용** 실내건축 산업기사 자격증 시험에 대비 이론 및 실습
- 교육 기간** 2개월 정규반과정 - 2010.12.27 ~ 2011.02.25 (총42일)
1개월 모의고사반 - 2011.03.21 ~ 2011.04.22 (총25일)
- 교육 시간** 1부 - 10:00~12:00 2부 - 13:00~15:00
3부 - 15:00~17:00 4부 - 18:00~20:00
- 수강료** 450,000원
- 강사 소개** 문경희, 한은정

2기 미술심리지도사 - 1학기 (대학부설평생교육원협의회)

- 교육 소개** 본 과정은 다양한 미술매체의 자유적 숙성의 이해와 창의적 미술 창작 과정을 통하여 내담자의 심리적 정서적 갈등을 완화시켜 원만하고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돕는 미술심리지도사기증의 미술치료사 또는 미술심리상담가를 양성하기 위해 개설된 과정입니다.
- 교육 내용** 미술치료 개론, 그림준비와 평가, 그림대상과 영역 등
- 교육 기간** 2011.03.14 ~ 2011.06.21
- 교육 시간** 월/화 15:00~18:00 (1학기 15주씩 총 90시간)
- 수강료** 550,000원
- 강사 소개** 박신자, 최종일, 박윤미, 탐티칭

한자 2급 자격증 준비반 (화 / 목)

- 교육 소개** 국가공인 한자 2급 자격증 취득을 위한 한자교육
- 교육 내용** 한자의 기초 배우기 배우기 시험에 나올 2000한자 학습,예상문제와 기출문제 풀이
- 교육 기간** 2011.01.04 ~ 2011.02.24
- 교육 시간** 화/목 10:00 ~ 13:30
- 수강료** 100,000원
- 강사 소개** 김병석 (영문 스펜서한자 대표)

게임그래픽 전문가 과정

- 교육 소개** 2011년 제 2회 게임그래픽전문가 자격증 시험에 대비 드로잉의 기초와 디지털 작업의 훈련 및 게임그래픽 이론 전반에 대하여 학습하여 학습자의 자격증 취득률을 높여도록 합니다.
- 교육 내용** 게임그래픽전문가 자격증 시험에 대비 이론 및 실습
- 교육 기간** 2011.01.04 ~ 2011.06.25
- 교육 시간** 화요일 10:00 ~ 15:00
- 수강료** 400,000원
- 강사 소개** 박지영 (에코리니아 GV커뮤니케이션즈 대표)

패션머천다이즈 산업기사

- 교육 소개** 패션머천다이즈산업기사 자격증 시험에 대비, 상품의 제조와 생산 판매 및 유통 등에 관련된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의 이론과 실기 실습 전반에 대하여 학습하여 학습자의 자격증 취득률을 높여도록 합니다.
- 교육 내용** 패션머천다이즈산업기사 자격증 시험에 대비 이론 및 실습
- 교육 기간** 2011.01.04 ~ 2011.04.05
- 교육 시간** 1/2월 - 화 / 목요일 13:00 ~ 16:00
3/4월 - 화요일 19:00 ~ 22:00
- 수강료** 400,000원
- 강사 소개** 장성현 (경성대학교 의상학과 겸임교수(패션디자인 전문))

순수하고 무심한 동화의 다양한 얼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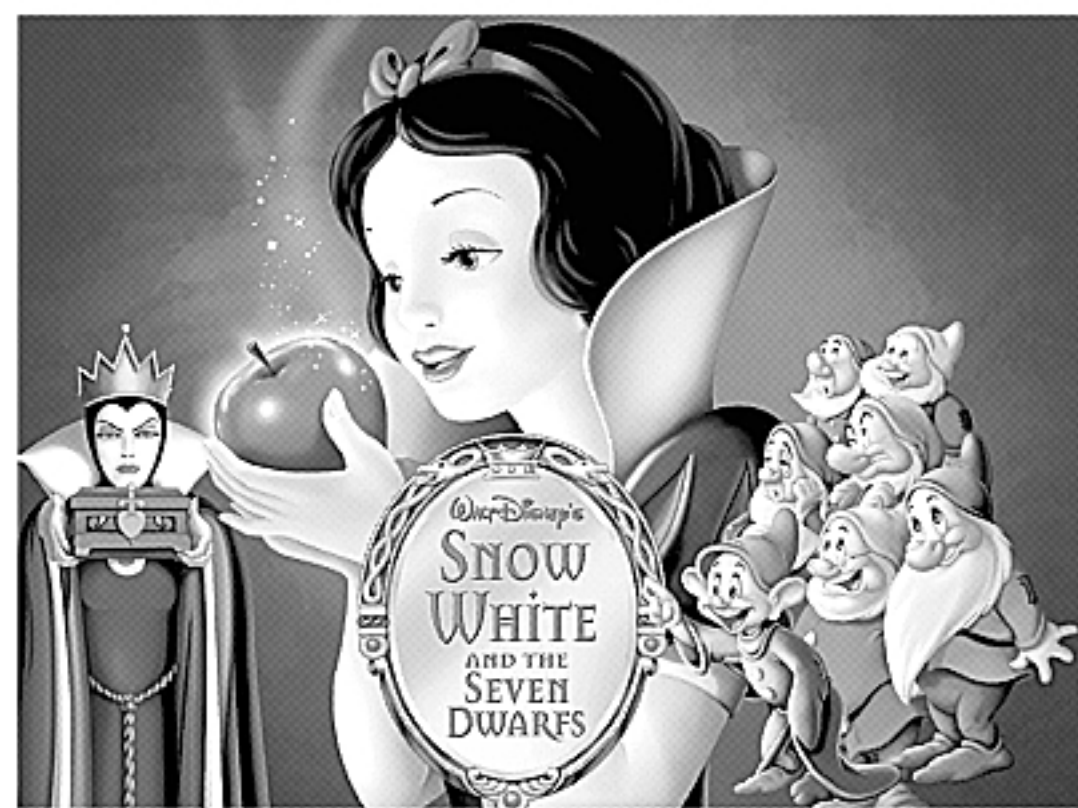
동화의 정신분석적 해석부터 역사적 해석까지

중세시대부터 구전되어 온 유럽의 민담에서 멀티플렉스 영화관에서 상영되는 그림동화 영화까지, 동화는 사람들의 삶에 친숙하게 녹아있는 존재다. 어머니가 어린 자식들의 머리맡에서 읽어주는 동화책 속엔 화려한 성과 아름다운 공주가 등장하는 마법 같은 세계가 등장한다. 그러나 순수한 이미지의 동화도 한때는 비평가들로부터 '이런 이야기를 어머니가 어린 자식들에게 태연하게 읽어줄 수 있겠는가' 같은 혹독한 비판을 받은 역사가 있다. 그림형제가 1819년 제 2편부터 대상을 어른에서 어린이로 전환하며 적절한 '검열'을 하기 전까지는 말이다. 그리고 현대에는 이러한 동화에 다양하고 새로운 해석이 시도되고 있다. 다소 잔혹하고 거친 그림동화 초판 속에 감추어진 심리 및 역사적 의미를 분석한 것이다.

동화 '헨젤과 그레텔'의 주인공인 두 아이, 헨젤과 그레텔은 과연 부모에게 버림받은 불쌍하고 연약한 아이들일까. 여기 재미있는 해석이 있다. 독일의 정치학자 I. 페처는 '누가 가시나무 공주를 깨웠는가'에서 '헨젤과 그레텔'은 적어도 두 가지의 범주가 그려진 일종의 추리소설이라 해석했다. 첫 번째는 가난한 나무꾼 부부가 두 자식을 굶겨죽일 목적으로 숲에 버리는 살인계획이고 두 번째는 헨젤과 그레텔의 '마녀'에 대한 살인계획이다. 페처는 헨젤과 그레텔이 과거로 만든 집의 노파를 왜 '마녀'라고 생각했는지 이유를 알 수 없다고 지적한다. 헨젤과 그레텔은 마녀를 한 번도 본 적이 없을 뿐 아니라, 마녀 자체가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 가공물이기

때문에 이는 헨젤과 그레텔의 편견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이다. 포악한 마녀인 계모에게 살해당할 뻔한 위기를 겪고 난 '백설공주'는 일곱 난장이의 도움을 받고 결국 이웃나라 왕자와 결혼하는 행복한 이야기의 주인공이다. 하지만 그 '포악한 마녀'가 실제로 공주의 친어머니였다는 이야기는 패러디가 아닌 이 잘 알려진 동화의 초판본이다. 초판에서 백설공주는 아버지인 왕과 근친관계를 맺은 데다 자신을 죽이려 한 어머니를 죽을 때까지 불로 지진 구두를 신고 춤추게 한 잔혹한 여자로 그려졌다.

기후 마사오의 저서에서 존 M. 엘리스는 백설공주를 '모녀 사이의 성적 질투에 의한 적대관계를 다룬 이야기'라 해석했다. 왕비는 자기의 아름다움을 인정받고 싶은 자기애적인 바람으로 예쁜 딸을 원했으나 딸이 자기의 연장이 아닌 별개의 인간이란 사실을 자각하고 위협을 느낀다. 그리고 딸을 없애려 했으나 실패했고 그것은 비극으로 이어졌다는 것이다. 모리 요시노부는 '메르헨의 심층'에서 '왕비는 백설공주를 살해하려던 게 아니라 딸의 몸을 지켜주려 했다'는 재미있는 해석을 했다. 왕비는 어머니로서 부적절한 부녀관계를 걱정해 딸을 아버지에게서 떼어냈다는 것이다. 백설공주에 등장하는 왕자에 대한 재미있는 해석도 있다. 모리 요시노부는 전혀 모르는 마녀의 시체에 한눈에 반해 자기의 성으로 유리관을 운반하게 한 왕자의 행동을 '계도를 이탈한 행동'이라 말하며 이 왕자를 '시체 애호가'라는 심복한 단어로 분류하기도 했다. 동화는 생각보다 실제와 가까



운 이야기일 수 있다. 동화 속 잔혹한 현실은 기근, 마녀사냥 등 중세 유럽의 현실을 반영한 모습이기 때문이다. 18세기 독일에서 가장 심각한 문제는 공황이었다. 전체 인구의 20~25%가 최소 빈곤선 이하의 생활을 하고 있었다. 근대 초 유럽의 민담을 역사학적 관점에서 분석한 『고양이 대학살』 기록에 의하면 17세기 프랑스에 기근과 흑사병이 만연하던 때 부모들은 당장 먹고 살기 위해 아이들을 유기하기도 하고 악마에게 팔기도 했다. 굶어 죽을 지경인 가족들은 아이들을 버렸다. 또 자식이 일하지 않고 음식만 훔쳐 내면 가차 없이 버릴 계획을 했다. 당시 사회의 잔혹한 상황과 폭력성이 동화 속에 고스란히 남아있다는 점을 알 수 있다. 또한 동화에 등장하는 수많은 계모 역시 그 시대에 흔한 일이었다. 아이를 낳는 것이 몹시 위험한 일이었기 때문에 많은 여자들이 아이를 낳다가 사망했다. 그 직후 남편들이

다시 결혼한다는 내용 역시 마찬가지다. 아이들에게 새어머니를 찾아주는 것은 남자들에게 매우 중요한 일이었다.

그림 동화의 카니발리즘도 당시엔 현실적인 일이었다. 『그림동화의 숨겨진 진실』에 의하면 교수형 당한 목사의 배를 갈라 지방을 꺼내 떠버리 장사꾼에게 판 1726년의 기록이 남아있으며 1761년엔 드레스덴의 의약품 공장가격의 품목에 사람의 지방이 버섯이 들어있었다고 한다. 또한 공개처형 때 참수당한 사람의 피를 받으려고 많은 사람들이 처형장으로 왔다. 형리의 하인들은 참수당한 사람의 머리에서 솟아나온 피를 작은 컵에 담아 팔려드는 병자에게 팔았다는 기록이 있다고 한다. '파란수염', '신데렐라' 등에 등장하는 잔인한 묘사들은 당시의 시대상을 무심하게 반영한 거울과 같다.

이상미 기자 sangmi@hansung.ac.kr

동양화 스토리

가난한 목수의 아들로 태어나



제백석 작 '새우' 부분

제백석은 가난한 목수의 아들로 태어나 12세에 목공을 배우기 시작하여 자수성가로 중국 당대 최고의 화승으로 칭송 되었다. 그는 중국 근현대의 저명한 화가이자 전각가로서 1863년에 태어나 1957년에 세상을 떠났다. 그의 회화세계는 시문과 뛰어난 전각, 서법과 산수, 회화, 초충 등 제한이 별로 없었으며 생활 주변의 생생한 현장감이 넘치는 소재들을 다루면서 근현대 중국화의 소재들을 전환시키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청이 멸망한 후 중국화를 계승한 화가들 중 가장 성취가 높다고 인정되는 제백석의 그림은 여러가지 소재들의 그림이 있으나 그중에서도 특히 새우, 개, 물고기, 개구리 등의 묘사는 대담한 구도와 필묵의 구사에 있어서 매우 독특한 예술의 경지를 보여주고 있다.

그의 대표작 중 하나인 '새우'는 새우의 음양, 동세 및 투명감과 질감뿐만 아니라 극도로 정제된 필묵의 경지를 잘 보여주고 있다. 60세 이전 그의 새우 그림은 묘사 위주였지만, 62세 때는 직접 어항에 새우를 기르기 시작하면서 새우의 형태를 더욱 심도 있게 관찰하기 시작하였다. 66세 때는 정확한 새우의 형태뿐만 아니라 질감까지도 잡아내었고, 새우의 작은 다리를 10개에서 8개로 줄이고, 다시 68세 때는 8개에서 6개로 줄여서 그렸다. 또한 새우의 머리 부분과 가슴 부분에 사용된 연한 먹색 위에 진한 먹색의 일필을 더해 생동감을 더욱 증가시켜 주었는데, 그는 스스로 말하기를 "나의 새우 그림의 창작에 있어서 7-8년의 시간 속에서 이 일필은 제일 성공한 창조였으며, 새우의 풍광감을 더했을 뿐만 아니라, 새우 몸체의 투명함을 표현하였다. 또한 나의 새우 그림은 이미 여러번 변화하였는

데, 처음에는 단지 실제 모습의 변화였고, 두 번째는 먹색의 변화였다. 이것이 세 번째 변화이다"고 하였다.

이와 같이 제백석의 새우 그림은 이미 확실한 형식 결미의 경지에 도달하였음에도 그는 78세 이후에 또 새우의 다리를 5개로 줄여서 그렸지만, 실제로 더 이상 다리를 줄일 수 없어서 수염을 더하여 그렸더니 비로소 간결하고 세련된 모습으로 완벽함을 이루게 된다. 그러므로 그는 "나의 새우 그림은 수 십년만에 비로소 그 신비함을 얻게 되었다"라고 하였다.

청대 왕개의 『개자원화전』에 "반갑함을 없애면 곧 간결해지고, 그것이 지극히 간결함에 이르러 되면 자연히 정취가 넘쳐 나게 된다. 사실 수 백번의 붓 사용으로도 묘사할 수 없는 것이 있다. 그러나 한 두 번의 붓으로 얻을 수 있으며, 이로써 미묘함이 들어가게 된다"고 하였듯이 그는 그리고자하는 대상의 외형의 간결함의 변화뿐만 아니라 내재의 무형까지도 변화를 추구하여 그림의 독특한 예술의 경지를 이루었다.

제백석의 독특한 예술적 성취는 회화뿐만 아니라 전각에서도 일가를 이루었는데, 진사증은 '제백석의 인장은 정교하고 그림은 고졸하여, 그 모두 미묘함을 구별하기 어렵다'고 하였듯이 그는 중국 전각사에 새로운 장을 열었다.

그의 높은 예술적 성취는 유년시절 목수인 아버지의 영향과 유관하다고 하겠는데, 즉 그의 회화는 전각과 서법의 예술적 특징과 연계되었다고 하겠다. 특히 그의 회화에 있어서의 독특한 장법(구도는 바로 그 좋은 예라고 하겠다.

이근우 / 중명대 강사

학술서평

그들은 그 후로 '오래오래 행복하게' 살았을까?

『페로 동화집』/사를 페로 지음 /노블마인



『그 후로 오래오래 행복하게 살았습니다』라는 문구로 끝을 맺는 여러 동화들을 어릴 적 우리는 수없이 들으며 지어왔다. 동화 속 주인공들은 역

경을 겪으면서도 결국 행복한 결말을 통해 우리에게 만족감을 선사했다. 그러나 그 동화들은 아이들에게 꿈과 희망을 주는 이야기로 각색된 것일 뿐이다. 우리가 알고 있는 동화의 원전은 본래 어른을 위한 동화였다.

누구나 '빨간 두건' 이야기를 알고 있을 것이다. 늑대가 할머니와 빨간 두건을 모두 잡아 삼키지만, 사냥꾼에 의해 할머니와 빨간 두건은 구출되고, 결국 늑대는 최후를 맞는다. 그러나 이 책에는 빨간 두건이 늑대에게 잡아 먹힌 후 구원은 없다.

아름답게 잠들어 있던 잠자는 숲속의 공주는 왕자의 키스를 받은 후 잠

에서 깨어나 오래도록 행복하게 살았다는 결말 또한 없다. 공주는 왕자의 키스를 받은 후에 식인귀(虎인) 시어머니에게 살해될 위협에 처한다.

저자는 프랑스 작가인 사를 페로다. 그는 전래되어 오는 전담을 엮으며 자신의 생각과 교훈을 덧붙였다. 역사의 변화와 더불어 많은 동화들도 변화하고 각색 돼 왔다. 줄기가 되는 이야기는 같지만 지역에 따라 작가에 따라 그 양상은 조금씩 다른 특징을 지니고 있다.

전 세계 아이들에게 읽히는 동화들의 원작이라고 할 수 있는 사를 페로 동화는 1697년 초판이 나온 이후 어린

이의 시선에 맞추어 끊임없이 다시 쓰여 왔다. 당대 사회의 여성의 모습 등 사회모습을 묘사한 페로의 통찰을 볼 수 있다.

이 동화집은 민담을 원형으로 쓰인 원본을 그대로 살려 새로운 즐거움과 만족을 선사할 것이다.

이 책에는 모두 10편의 동화가 실려 있다. 순진하고 아름다운 이야기를 기대했던 독자라면 그런 기대는 미리 접어두시길 바란다. 우리가 기억하는 동화보다 더욱 매력적인 페로의 이야기가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다.

공공화 기자 gong0300@hansung.ac.kr

2011년 상반기 KOTRA 지사화사업 참가자 모집 안내

안녕하십니까? 취업창업지원팀입니다. 2011년 상반기 KOTRA 해외인턴십 지사화사업을 다음과 같이 시행하오니 참여를 희망하는 학생들의 많은 지원 바랍니다.

- 1. 서류접수기간 : ~12월 12일(일) 이메일 접수 [방문제출은 12월 10일(금)까지입니다.]
- 2. 면접일 : 12월 14일(화) [장소/시간 추후 공지]
- 3. 서류전형 합격자 공지 : 12월 13일(월) 한성공지에 게시예정

- 1. 모집인원 : 0명
- 2. 신청기간 : 12월 12일(일) 이메일접수 [방문접수는 12.10(금) 17시까지]
- 3. 지원자격 : 졸업예정자/교육종료후 취업연계가 가능한 학생으로 4학년 이하 재학생은 제외
 • 영어/한글번역 및 보고서 작성능력 필요
 • 기본적인 워드능력 필요
 • 평점평균 : 3.5/4.5 이상
 • 토익 : 800점 이상
- 4. 선발기준 : 학점 30%, 외국어성적 30%, 회화능력 30%, 면접 10%

- 5. 연수기간 : 6개월 이상 (2011년 3월부터)
- 6. 학점인정 (2011년 8월 졸업예정자만 해당)
 산학협동교육과정 운영에 관한 시행세칙에 따라 당해 인턴십 수료시 최대 15학점(전공선택5학점, 일반선택5학점, Pass/Non-pass)인정가능하며, 2011학년도 1학기 등록금 납부자에 한함.
(KOTRA 해외인턴십 종료 후 연수를 증명할 수 있는 관련서류와 학점인정요청서를 취업창업지원팀으로 기간 내에 제출해야 하며, 관련 서류 심사 후 결정사항의 일일 시 해당학점 인정함)
- 7. 참가경비 : 6개월간 총 1,200만원 소요

지원구분	총 경비	국고지원경비	개별부담금	비고
졸업자 (매 4학,2학기 재학생, 2011년 2월 졸업생)	1,200만원	800만원(대상)	400만원+α	
2011년 1학기 비 등록금납 후 2011년 8월 졸업예정자			미정+α	학교지원금 기준 해외 인턴십사업에 준함

- 8. 사업내용 : 현재 졸업예정자를 인턴으로 선발하고 해당 인턴과 국내 수출 중소기업과 1:1매칭 ※ 입체별로 인턴인터뷰 등을 통해 결정함.

- 9. 제출서류 및 방법 : 1) 제출서류 : 신청서, 자기소개서 (한국프로그램 A4 2장이내, 자기소개서엔 연수종료후 계획도 자유양식)
 2) 취업창업지원팀 이메일(job@hansung.ac.kr)로 송부 또는 방문접수 (메일송부시 : 제목 KOTRA-해외인턴십지원자 성명+발송요일)
 8. 추후 일정 : 지원자 면접 : 12월14일(화) 예정 (자세한 사항은 한성공지를 통해 추후 공지 예정)
 9. 지원자 주의사항 : (1) 2011년 12월 졸업하는 동계 해외봉사단, 교환학생 프로그램 등과 중복지원 불가합니다.
 (2) 모든 신청자는 정해진 시간과 장소에 면접심사에 예외없이 참가하며 개인적인 사정때문에 개별 심사는 없습니다. (출석확인을 위한 과제행사 참가확인서 발급해드립니다.)
 (3) 모든 참가자는 KOTRA와 협약에 따라 정해진 일정을 따르게 되며, 개별출발이나 현지 개별 체류연장은 허용하지 않습니다.
 (4) 합격 후 개인사정으로 참가포기 신청시 포기시기에 따라 종료포기에 따른 수수료 발생 분은 학생이 부담하며, 향후 해외인턴십 프로그램 선발에서 불이익을 감수해야 합니다.
 (5) 위 프로그램내용은 현지 사정에 따라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사설

일찍 일어나는 학생이 기회를 잡는다

바야흐로 취업시즌이다. 서류를 들고 뛰는 4학년생들의 모습을 보는 필자의 호흡도 가빠진다. 해마다 되풀이되는 일이지만 최근 들어 더 유심히 취업문제를 들어다보게 된다. 갈수록 급격히 하락하는 취업률 때문이다. 우리대학의 경우 단국대학보다 편차를 보이는 하지만 과거에 비해 대략 10% 정도 취업률이 줄고 있다. 이는 비단 우리대학만의 문제가 아닌 전국적인 현상이다. 모두들 취업을 위해 힘겨운 싸움들을 하고 있다.

대학마다 나름의 처방을 내놓고 있지만 사정이 나아질 기미는 별반 보이지 않는다. 대학의 노력을 바라보는 교육과학기술부 공무원들의 시선에서도 그런 우려를 읽을 수 있다. 취업률은 경제상황, 산업구조, 기업의 채용방식, 취업대상자들의 수 등 대학으로서의 어쩔 수 없는 요인들의 복합적 영향을 받기 때문이다.

이런 와중에 최근 흥미로운 사실 하나를 알게 되었다. 취업촉진을 위한 교내 위원회의 조사결과를 미리 들여다보다 안 것인데 학생들이 취업에 관심을 갖고 관련 정보를 수집하기 시작하는 시기가 대략 3학년 2학기 정도라는 것이다. 물론 복학생의 경우는 부족한 직후가 되겠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그렇다고 한다. 기억을 더듬어보니 필자도 그 때쯤 취업 등 장래적정을 하기 시작했던 것 같다. 그리고 실제 취직 준비는 4학년 여름부터 시작했다. 다소 늦은 감이 있었다. 부랴부랴 기업공채 준비를 했고 어찌어찌 입사는 했지만 적성이 맞지 않아 얼마 후 퇴사하고 다시 대학원에 진학했다. 충분히 자신의 장래에 대해 고민하지 않아 생긴 일이었다.

취업에 관심을 갖는 나이가 늦어지는 이유를 알고 싶어 주변의 학생들에게 물어 보았다. 그 결과

역시 재미있었다. 필자가 만나본 학생들은 대부분 취업난이 심하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그러나 취업에 대해 관심을 갖는다는 것을 부담스러워했다. 취업을 생각한다는 것 자체가 자유롭던 학생시절이 끝나는 것이요 진짜 어른의 세계로 들어서는 것이 기쁘게 느껴지는 의미로 받아들이는 경향을 강하게 느낄 수 있었다.

이런 생각이 취업에 관심을 갖는 시기의 지연에 제법 큰 영향을 주고 있는 듯했다. 좀더 일찍 취업에 관심을 가진다면 어학 등의 준비를 더 할 수 있고 취업경쟁에서도 좀 더 유리한 고지를 차지할 수도 있다는 점에서 아쉬운 대목이다. 필자처럼 중간에 진로를 바꾸는 우도 범하지 않을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학생들에게 이런 얘기를 들려주고 싶다. 인생은 그렇게 단절된 국면들의 연결이 아니며 취업은 꿈과 낭만을 뒤로하고 지엄하고 냉혹한 또 다른 생의 국면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직장 생활에도 문화가 있고 사활 사는 냄새도 풍기며 그곳에서도 얼마든지 꿈을 키워갈 수 있다고. 직장은 기성의 가치만 있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가치와 도전이 끊이지 않고 밀어닥치는 창조적 땅이 될 수도 있다.

취업은 갑자기 들이닥치는 사건이 아니며 학창 시절과 마찬가지로 성숙과 성장의 한 과정인 것이다. 이런 점에서 취업에 대한 관심은 대학 입학과 동시에 자연스럽게 갖는 것이 좋다. 그렇게 해서 가급적 삶이 들 흐르듯 부드럽게 이어져야 한다. 이렇게 되면 변화에 적응하느라 큰 에너지를 쓸 필요도 없고 자신의 꿈과 현실이 조화된 삶을 꾸려나갈 가능성도 커진다. 학창시절을 보람되게 보낼 수 있다는 것은 또 다른 답이다.

의 화 정



문귀선 교수 (영어영문학부)

한성대는 상상력 인큐베이터다?

우리학교는 홍보문구로 '상상력'이라는 키워드를 몇 년 전부터 채택하고 있다. 학교입구 외벽에 걸어 놓은 '상상력'을 슬로건으로 하는 대형 휘장을 쳐다볼 때마다 '상상력'을 키우는 대학이라는 구호만 내걸면 상상력이 저절로 생기는 건가? 하는 의문이 든다.

정보화시대를 지나 이제 후기 정보화시대로 접어드는 시점이라고도 한다. 인터넷 검색으로 최고의 강의를 수강할 수 있고 필요한 지식을 실시간에 얻을 수 있는 시대이다. 이런 정보화 사회에서는 '창의력'이 뛰어난 인재가 필요하다고도 한다. 그렇다면 '창의력'과 '상상력'은 어떤 상관관계가 있으며 우리대학은 왜 '창의력' 대신에 '상상력 인큐베이터'라는 구호를 내걸고 있는가? 과연 이러한 구호에 걸맞게 학생들의 '상상력'을 진작시키기 위한 구체적인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는가? 2010년 2학기가 끝나가는 이 시점에 우리 한성대 구성원들은 모두 한번쯤 생각해볼바야 할 주제일 것 같다.

'창의력'이란 무엇인가? 에 대하여 규정한 책을 보면 '창의력은 고정관념 깨기다.' '창의력은 새로운 시선을 찾는 것이다.' '창의력은 상상력이다.' 등과 같이 조금씩 다른 말로 설명하고 있다. 우리대학에서 '상상력'을 키워드로 채택한 것은 아마도

'상상력'이 바로 '창의력'과 일치하는 것으로 여겼기 때문일 것이다. 그러나 이고르 스트라빈스키에 의하면 '상상력'이 '창의력'의 전제가 될 수 있을지 언정 '상상력' 그 자체가 모두 다 '창의력'으로 연결되는 것은 아니라고 한다. 가령, 가난한 <성냥팔이 소녀>의 마지막 상상은 추위와 죽음의 고통을 덜어주기 위한 상상력이었다면 가난한 화가가 추운 겨울날 차가운 화실에서 상상의 세계에 빠져 완성시킨 그림은 창의적 상상력의 결과물이다. 다시 말하자면, <성냥팔이 소녀>의 상상은 구체적인 행동이나 실체가 결여된 현실 도피적 상상력이고, 가난한 화가의 상상은 행동으로 옮겨져 현실세계에서 실체를 창조하게 하는 창의적 상상력이 되는 것이다. 따라서 우리 대학의 홍보문구도 행동으로 실천되지 않고 생각으로만 끝날 수 있는 막연한 '상상력'이 아니라 현실에서 실체화될 수 있는 '창의적 상상력'이라는 구체적인 표현으로 바뀌어야 하지 않을까?

그러면 '창의적 상상력'을 어떻게 키울 수 있을까? '창의력'은 인문학적 사고에서 출발한다고 본다. 인간과 인간을 둘러싼 주변의 모든 것들에 대하여 관심을 가지고 자세히 들여다보기가 바로 인문학적 사고하기이다. 웬만큼 클러의 수필 <three days

to see>는 정상적인 두 눈을 가진 사람들이 볼 수 없는 자신보다 얼마나 많은 것을 보지 않고 살아갔는지 잘 묘사하고 있다. 자세히 보기 위해서는 많이 알아야 한다. 아는 만큼 보인다고 하지 않는가. 많이 알기 위해서는 많이 읽어야 한다. 그러므로 우리대학이 학생들의 '창의적 상상력'을 진작시키는 인큐베이터의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책읽기'를 강조하고 독려하는 다양한 프로그램과 행사를 펼쳐야 한다고 본다. 예를 들면, 현재 많은 대학들에서 공인 영어성적을 졸업요건으로 요구하듯이 우리 대학에서는 학년별, 주제별 필독해야 할 필수 독서목록과 학생자신이 작성한 선택 독서목록 중에서 일정량의 책읽기를 졸업요건으로 하는 제도를 고려해볼 수도 있을 것이고, 매주, 매월, 매학기 단위로 독서 퀴즈 대회, 북 프로젝트 대회, 주제별 토론 대회 등을 개최할 수도 있을 것이다. 이런 분위기 속에서 책 많이 읽은 한성대생은 당연히 아는 게 많을 것이고 주변의 사물들에 대해 더 많이 자세히 관찰하고 볼 수 있게 될 것이다. 따라서 자신이 관찰하고 느낀 많은 것들을 현실세계에서 다양한 형태의 실체로 실타처럼 풀어가는 창의성을 발휘할 수 있게 될 것이다. 이런 대학이 바로 창의적 인재를 키우는 인큐베이터가 아닐까?

독자투고-영화 리뷰

하버드 천재들의 음모와 암투 '소셜네트워크'

유동수 (부동신 1)

'5여명의 온라인 친구', '네트워크 혁명'. 페이스북과 그 창립자 마크 주커버그를 소재로 한 영화 '소셜네트워크(The Social Network)'의 포스터에 쓰여 있는 말이다. 국내에서는 아직 트위터나 싸이월드의 영향력에 비해 바가 못 되지만 전 세계적으로 5억 5천만명의 가입자를 보유한 페이스북은 1억 5천만명의 트위터, 1억 2천만명의 마이스페이스를 앞지르고 SNS 시장을 선도하고 있다.

회사의 CEO이자 창립자인 마크 주커버그는 『포브스』지에 따르면 2010년 기준 미국 내 400대 부자 중 35위를 기록해 42위인 애플의 스티브 잡스를 밀찌감치 따돌렸다. 26세의 그는 이제 세계에서 가장 젊은 자수성가형 억만장자다.

마이크로소프트의 빌 게이츠를 닮고 싶다는 그의 성공신화에 모두가 놀랐다. 그가 그토록 동경하던 마이크로소프트가 제휴의 손길을 뻗었고 구글과 애플이 경쟁의 눈길을 보내고 있다. 전 세계의 사람들은 그와 페이스북을 연구하기 시작했다. 『The Facebook Effect』, 『The Facebook Era』등 많은 책들이 출간되었고 국내에서도 『페이스북 이펙트』라는 동일 제목의 입문서가 최근 발간되었다.

올해 11월에 개봉한 '소셜네트워크(The Social Network)'는 이러한 페이스북에 대한 전 세계적 관심을 토대로 하여 제작된 영화이다. 페이스북의 설립과정과 그 과정에서 일어난 마크 주커버그와 주변 사람들의 갈등을 다루고 있다. '세븐', '벤자민 버튼의 시간은 거꾸로 간다'의 감독을 맡았던 데이빗 핀처가 메가폰을 잡았다. 고명환 저스틴 탐바

레이크가 조연으로 출연했다.

주인공이 실존 인물이라는 점에서 데이빗 핀처 감독의 시선은 매우 신중하다. 감독은 영화를 멀리서 관조하면서 사건들에 대해 관객들에게 계속적으로 생각할 것을 요구한다. 극 중 장치된 다양한 암시들에 대한 판단은 전적으로 관객의 몫이다. 플래시백을 자주 사용해 탄탄함이 매우 짧은 것처럼 느껴진다. 저명한 스릴러 감독의 명성이 실화를 바탕으로 한 이 영화에도 그대로 담겼다.

싸이월드, 트위터에 이어서 페이스북으로 국내 네티즌들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는 현재, SNS 사용자라면 누구나 공감할만한 이야기로 영화는 흘러간다. 빌 게이츠의 성공신화가 마크 주커버그에게 새로운 영감을 준 것처럼 마크 주커버그와 페이스북의 성공신화를 다룬 영화의 소재 또한 SNS 서비스에 매혹된 요즘 네티즌들에게 신선하게 다가올 것이다. 혹시 또 모른다. 영화를 보고 페이스북과 마크 주커버그에게 감명 받은 누군가가 새로운 세상을 창조할지도.

다만 비즈니스를 다룬 영화들이 으레 그렇듯이 편한 마음으로 보기 어렵다. 하버드 천재들의 페이스북을 둘러싼 암투는 페이스북의 거대한 영향력 만능이나 그 무게가 무겁다. 거기에 감독의 냉정한 시선은 때때로 음모와 암투를 돋보이게 만든다. '소셜네트워크'의 미국용 포스터에는 국내 포스터와는 달리 섬뜩한 문장 하나가 적혀있다. '5여명의 온라인 친구가 생긴 후 진짜 친구들은 모든 적이 되었다'

한줄댓글

“한반도 정세에 관한 당신의 생각은?”

23일 북한이 해안포 및 곡사포를 연평도와 인근 해상으로 발사해 인명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이러한 한반도 정세에 대한 당신의 생각을 적어주세요.

서태식 (행정 2)

현재 한반도 정세는 티비에서 말하는 만큼 위험해 보이지 않습니다. 연평도 사건의 경우, 북한내의 시민계층의 혼란과 정권승계 문제때문에 북한이 시민들의 눈을 딴 곳으로 돌리고자 단발성 이슈를 만들어냈다고 하시는 평론입니다. 우리나라는 이 점에 대해 관대히 넘어가선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한미합동훈련을 통한 우리 군의 저력을 북한에게 보여주어 우리나라에 대한 인식을 바꿔 다시는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한동욱 (행정 1)

지금의 동아시아의 정세는 마치 1차대전 직전의 유럽을 보는 것만 같습니다. 평화에는 관심이 없고, 그저 자국의 이익만을 생각하는 외교상황, 전쟁의 위기에 무감각한 국민들, 무력보복을 조장하는 언론, 주체할 수 없을만큼 쌓여있는 무기... 결과는 전 세계가 휘말린 세계대전이었죠. 이제 그런 전쟁이 다시 벌어지지 않길 바랍니다.

제445호 당첨자는 서태식(행정 2)학생입니다.

교직원 인터뷰

새로운 한성인을 제일 먼저 환영하는 곳

우리 학교엔 원활한 학교 행정을 위해 힘쓰는 교직원들이 있다. 이에 그들을 엿볼 기회가 되는 지면을 구성했다. 이번 호엔 입학관리팀의 박인호 팀장을 만났다.



박인호 팀장 (입학관리팀)

올해 3월이면 새로운 얼굴의 한성인들이 본교에 입학한다. 재학생들이 그랬던 것처럼 이들 역시 수시와 수능을 보기 전에 여러 대학의 입시전형에 대한 정보를 얻었을 것이다. 각 대학마다 추구하는 입시전형은 다양하기에 학생들은 개개인적으로 정보를 찾거나, 각 대학의 홍보를 통하여 정보를 얻는다. 그렇다면 우리학교는 어떠한 방법으로 신입생들에게 학교를 홍보하고 신입생들을 선발할까?

박인호(입학관리팀)팀장은 2008년 3월부터 입학정비팀 업무를 맡았고 현재는 입학관리팀에 있다. 그는 “올 해부터 입학정보팀 업무가 기획과 관리로 나뉘어 보다 전문·세분화 된 업무가 가능하다”며 “입시에 관한 업무를 심도있게 다루기 힘들던 예전과는 달리 새로운 입시 모형을 만들어 우수 학생 선발을 보충할 수 있게 하기 위해 부서를 개편했다”고 덧붙였다.

새로 개편된 부서의 입학기획팀에서는 입학전형들을 수립하고 입학(편입학 포함)제도 개선에 대한 연구를

한다. 또한 입학 홍보에 관한 사항 등의 업무를 담당한다. 입학관리팀의 업무는 합격자 및 추가합격자 발표, 수능·학생부 CD 인수인계와 각 부서별 인수인계를 담당하며 입학자 명단 보고와 입학 설명회 및 입학 상담에 관한 사항을 담당한다. 또한 입학의 대외협력에 관한 사항과 입학원서 진여본 폐기, 특별전형 입학자 경력 조화와 등록금 환불 진행에 관한 여러 업무를 한다.

입학관리팀에서 진행되는 입학 설명회는 주로 서울 내에 있는 고등학교에서 이루어지며, 이는 각 고등학교 혹은 교육 기관에서 요청 시 10~15개 학교를 선정한다. 박인호 팀장은 “수시 기간에 여러 고등학교를 다니며 입시 전형에 관해 홍보를 하며 모집요강 책자를 배포하고 마지막으로 본교에 접수한 학생들을 평가하여 우수한 학생을 선발한다고”고 설명했다.

박인호 팀장은 “신입생을 모집하는 입학업무는 학교에서 하는 힘든 업무 중 하나다. 9월부터 입시가 시작되면 야근을 해야 할 때가 다반사지만, 신입생들을 모집한다는 면에서 보면 자부심이 들고 보람차다”고 말했다. 그는 앞으로의 계획으로 “우수한 학생들이 한성대학교에 올 수 있도록 많은 홍보와 새로운 모집 선발 전형을 개발할 것이다”고 말했다.

김보현 기자 annyung17@hansung.ac.kr

2011년 상반기 KOTRA 해외인턴과정 모집 안내

안녕하십니까? 취업창업지원팀입니다. 2011년 상반기 KOTRA 해외인턴십 프로그램을 다음과 같이 시행하오니 참여를 희망하는 학생들의 많은 지원 바랍니다.

- 1. 개별부담금 • 학생개별 부담금은 약 400만원 정도 예상됩니다.
- 2. 서류접수기간 • 12월12일(일) 이메일 접수 [방문제출은 12월10일(금)까지입니다.]
- 3. 면접일 • 12월 14일(화) [정소/시간 추후 공지]
- 4. 서류전형 합격자 공지 • 12월13일(월) 한성공지에 게시예정

1. 모집인원 및 국가

항목	세부내용	비고
모집인원	5명	한성대학생 5명입니다.
해당지역	홍콩, 일본, 오스트레일리아, 말라야, 필리핀(마닐라)	각 국가별 1명
지원내역	해당 KBC에서 USD 300(월) 교통비 지원 예정	인턴과정을 평가하여 우수인턴은 표창 예정
총 경비	6개월 기준 약 1,200만원 소요 개별부담금 약 400만원 소요	학교지원사항: 기존 해외인턴십 사업에 준함.
KBC 공통	영어-한글번역 및 보고서 작성능력 필요	
요청사항	기본적인 워드능력 필요	
비자사항	KOTRA는 6개월 VISA취득을 위해 적극 협조하지만, 해당 국가의 고유한 관행에 해당하므로, 자세한 사항은 검토할 필요 있음.	

* 상기 프로그램내용은 현지 사정에 따라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2. 신청기간 • 12.10(금) 17:00까지 (이메일 제출시 12월1일(일)까지 접수받음)
- 3. 공통지원자격 • 4학기 이상 이수자중 2011년도 1학기 등록금 납부자 (졸업예정자는 제외)
• 각 국가별 요구능력 충족자
• 평점평균 : 3.5/4.5 이상 (총평은 3.7이상)
• 토익 : 800점 이상 (미달자 제외)

4. 선발기준

• 학점 30%, 외국어성적 30%, 회화능력 30%, 면접 10%

5. 연수기간

• 6개월(국가별로 상이할 수 있음) 2011.21 파견예정

6. 학점인정

신학점동료교육과정 운영에 관한 시행세칙에 따라 당해 인턴십 수료시 최대 15학점(정공신내)9학점(일반선내)6학점, Pass/Non-pass인정가능하며, 2011학년도 1학기 등록금 납부자에 한함.

(KOTRA 해외인턴십 종료 후 연수를 증명할 수 있는 관련서류와 학점인정요청서를 취업창업지원팀으로 기간 내 제출해야 하며, 관련 서류 심사 후 결정사항이 없을 시 해당인턴십 종료)

7. 제출서류 및 방법

- 1) 제출서류
 - 신청서
 - 자기소개서 (한글프로그램 A4 2페이지 차기소개서(지원동기 연수종료 계획도 자유양식)
- 2) 취업창업지원팀 이메일(job@hansung.ac.kr)로 송부 또는 방문접수 (비밀송부시 : 제목 'KOTRA-해외인턴십지원서 상명'로 발송요함)

8. 추후 일정

• 지원자 면접 : 12월14일(화) 예정 (자세한 사항은 한성공지를 통해 추후 공지 예정)

9. 지원자 주의사항

- (1) 2011년 12월 출발하는 동계 해외봉사단, 교환학생 프로그램 등과 중복지원 불가합니다.
- (2) 모든 신청자는 정해진 시간과 장소에 면접심사에 여유없이 참가하여 개인적인 사정어따라 개별 심사는 없습니다. (출석확인을 위한 과제형 참가확인서 발급요함)
- (3) 모든 참가자는 KOTRA와 협약에 따라 정해진 일정은 따르게 되며, 개별출발이나 현지 개별 체류연장은 허용하지 않습니다.
- (4) 합격 후 개인사정으로 참가포기 신청시 포기시기에 따라 중도포기에 따른 수수료 발생 분은 학생이 부담하며, 향후 해외인턴십 프로그램 신청에서 불이익을 감수해야 합니다.

내 꿈 안에 미래있다, 한성인의 진로탐색 4인 4색

자신이 원하는 직업을 찾기 보단 조금이라도 안정된 직업을 찾으려는 게 오늘날의 대학생의 모습이다. '취업'이라는 관문에 마주 섰던 사람들과는 달리 자신의 자아가 향하는 곳으로 진로를 탐색하는 이들이 있다. 이에 그들을 만나 이야기를 들어보는 명을 구성했다.

당신의 최종 꿈은? '꿈은 ing다'

심보현(무용 4)



자신의 꿈을 위해 끝없이 질주하는 한 사람이 있다. 누가 그에게 그 길을 가라하지도 않았다. 일반적인 대학 졸업생은 학과 전공에 맞춰 비슷한 계통으로 취업하지만 그는 아직 배울 것도 많고 호기심도 많다. 무용학과 4학년에 재학 중인 심보현 학생은 남들에 비해 조금 특이한 학력사항을 가지고 있다. 미술을 전공하던 그가 현재는 발레를 전공으로 한 것이다. 지난 2007년, 미대 졸업과 동시에 교육학을 전공으로 타 대학교에 진학했던 그는 작년에 편입시험을 통해 우리학교 무용과에 진학한 후 현재 졸업생을 앞둔 상태다. 그는 "디자인을 전공했던 시절 컴퓨터로 하는 작업보다 손으로 하는 작업을 더 선호해 작업하는 데도 애로사항이 많았다"며 "평소에 아동교육에 관심이 많아 예술과 접목한 교육을 하고 싶어 졸업 후 교육학과 진학을 했던 것"이라고 이유를 전했다. 디자인학과 재학 중에 취미로 시작했던 발레를 전공으로 전향하기까지는 자신의 무리한 노력과 주위의 권유가 있었다. "미술작업을 하면서 신체적인 운동효과를 위해 발레를 배우기 시작했지만 교육학과 재학 중에 만난 무용학과 교수님들의 권유로 예술교육을 실현하기 위해 편입을 결심했다"고 말했다. 그는 또 "무용학과 진학 후에는 7월부터 무용을 시작한 친구들과 함께 수업하는 것이 가장 힘들었다. 이미 몸이 굳은 20대에 무용을 시작했기 때문에 느끼는

신체적 한계로 오는 좌절감과 잡했던 근육과 뼈를 풀어내는 스트레칭과 연습으로 인해 몸이 많이 아팠다"고 회상했다. 심보현 학생은 "진로를 바꿈에 있어서 후회한 적은 없다"며 "이제까지 후회없이 열심히 노력한 것들이 조금은 다른 분야지만 예술교육으로 통합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 자신이 하는 예술에 대해 "미술은 화풍이나 지면에 자신이 표현하고자 하는 것을 풀어내는 과정이라면 춤은 나의 몸으로 풀어낸다 '표현욕구의 자유로운 분출'이 예술을 계속 할 수 있었던 원동력"이라며 "무용하는 사람들은 좋은 작품을 짜기 위한 고민이 많다. 무용가들의 수많은 고민이 모여 하나의 작품이 되어 무대에서 춤을 출 때의 희열이 가장 좋다"고 말했다. 심보현 학생은 자신의 꿈에 대해 "늦은 나이에 시작한 발레로 고민하는 초보자나 취미로 발레를 하는 많은 사람들에게 내가 했던 고민과 함께 느꼈던 신체적인 한계, 내가 풀어냈던 방식을 그대로 전해주고 싶다"며 "기존의 정해진 가르치는 방법·교재가 있지만 많은 경험과 고민을 토대로 나만의 교육법을 만들어 무용교육에 기여하고 싶다. 훗날 일반인 혹은 아동을 위한 예술교육 센터를 만드는 것이 최종적인 꿈이다"라고 전했다. 그는 현재 발레학원 강사로 취직이 된 상태다.

이연진 기자 odory11@hansung.ac.kr

우리는 대개 자신이 원하는 분야를 보다 더 깊이 파고들기 위해 전공과목을 선택하게 된다. 하지만 전공과 자신이 이루고자 하는 꿈이 항상 일치하는 것은 아니다. 남태경(역사문화 1)학생은 자신이 좋아하는 분야의 전공공부를 하고 있지만 계획한 진로는 전공과는 조금 다르다. 역사를 전공하지만 최종목표는 요리사라는 점이 흥미롭다. 그는 자신의 이름을 건 레스토랑을 경영하는 요리사가 꿈이다. 그는 "어릴 때 요리를 만드는 프로를 봤는데 보기도 아름답고 맛있어 보이는 음식을 만든 요리사의 능력에 반했다"고 말했다. 어릴 때부터 한결 같이 꿈꿔온 일하기에 그의 의지는 확고했다. 그러면 왜 역사학을 전공으로 택했는지 궁금해졌다. 이에 그는 "새로운 요리에 대한 아이디어는 단순히 조리법에만 있지 않다고 믿는다. 역사를 비롯한 다양한 분야를 공부하면 음식재료를 고를 때에도 새로운 안목이 생기게 된다. 옛날 사람들의 사교방식과 인종에 따라 다른 입맛에 대해서도 공부할 수 있어 요리할 때 고려할 수 있다"고 말했다. 남태경 학생은 세계적으로 유명한 요리사가 되기 위해 자기발전도 게을리 하지 않는다. 그는 현재 영어회화학원을 다니고, 집에서는 독학으로 중국어를 공부하고 있다. 그는 "외국 레스토랑 혹은 호텔에 취업할 기회를 놓치지 않기 위해 꾸준히 언어를 공부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1년 가까이 피자 가게에서 일하고 있다. 아르바이트 역시 음식을 만드는 것과 관련된 일이다. 요리사를 꿈꾸는 그에게는 일종의 경력인 셈이다. 그는 "비록 작은 피자 가게의 아르바이트생이지만, 이 가게의 요리사라 생각하고 피자를 만든다. 육체적으로 힘들 때도 있지만 1년째 이 일을 즐겁게 하고 있다는 것은 힘든 점보다는 보람이 크다는 것 아닐까. 항상 즐거운 마음으로 일하고 있다"고 이야기했다. 그에게는 현실에 지칠 때마다 자신을 충전시키는 좋은 습관이 있다. 다름 아닌 '메모'다. 그는 "중학생 때부터 사업에 관한 아이디어가 떠오르면 그때그때 메모했다. 정말 이 길이 내가 가야할 길인가라는 생각이 들 때 메모 한 종이를 읽어보면 내가 요리사라는 직업을 간절히 원하고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느낀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그는 "요리사에게는 맛있는 음식을 만들어 많은 사람들에게 대접하는 것이 가장 보람 된 것이 아닐까라고 생각한다. 예전에 신문에서 한 유명한 레스토랑의 셰프가 불우한 이웃들에게 무료로 스프를 제공했다는 기사를 읽은 적이 있다. 그 사람은 분명 맛있는 음식을 만들면서도 따뜻한 음식을 만들어 이웃들에게 대접하고 싶다"며 꿈에 대한 의지를 다졌다.

남태경(역사문화 1)

역사를 공부하며 그들의 맛을 읽다

남태경(역사문화 1)



김보현 기자 annyung17@hansung.ac.kr

모두 어린 시절에 TV에서 해주는 애니메이션을 보며 즐거워했던 기억이 있을 것이다. 어린이에게 즐거움을 주고 어린이를 뛰어넘어 어른에게도 즐거움과 감동을 주는 애니메이션 감독을 꿈꾸는 학생이 우리 학교에 있다. 한우진(애니제품 1)학생은 지난 11월 20일에 열린 제3회 한성대 영상제에서 애니메이션 '고백'을 출품해서 2등을 수상하였다. 애니메이션 '고백'은 뜨거운 감자 밴드에 노래 고백을 바탕으로 애니메이션 형식의 뮤직비디오 작품이다. 심사위원인 '영상정보의 이해'를 강의하는 최진성 강사는 작품에 대해 "김C가 보면 감사하다고 인사할 작품이다"고 높게 평가했다. 애니제품과로서 애니메이션 감독을 꿈꾸는 게 일견 당연해 보이지만 실상은 쉽지 않다. 그는 "애니제품과라고 해서 감독 같은 창작 쪽만 가는 건 아니다. 미술 입시학원 강사나 게임회사 쪽으로 많이 간다"며 애니메이션 감독이 되는 게 쉽지 않음을 밝혔다. 이렇게 어려운 길인 애니메이션 감독을 꿈꾸는 이유에 대해 그는 "어릴 때부터 집중력이 떨어진다든 소리를 많이 들을 정도든 시도 때도 없이 공상하는 걸 즐겼다"고 말했다. 이어 "그렇게 공상을 즐기다가 공상이 자유롭게 펼쳐지는 만화에 관심이 가

게 되었고 결정적으로 미야자키 하야오의 애니메이션을 보고 감독을 꿈꾸게 되었다"고 말했다. 애니메이션 감독이라는 직업은 한국에서는 무척 불안정해 보이는 직업이다. 안정적인 직업을 향하는 사람들에 비해 두려움이나 부담감에 대해 묻자 그는 "그렇게 진로를 이분법으로 나눠서 누가 맞고 누가 틀리다는 식으로 표현하기는 싫다"며 "다만 누가 어떤 길을 가고 있느냐의 문제"라고 말했다. 자신의 길이 불안하다고 평가받는 것이 싫으며 타인을 평가하기도 싫다는 것이다. 그는 또 "솔직히 아직 내가 현실적으로 꿈을 이룰 수 있을지 그렇지 나도 모른다 하지만 내가 하고 싶은 일에 대한 열정이 그런 부담감 두려움을 이기게 해준다"고 밝히며 자신의 진로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표현했다. 애니메이션 감독이 되기 위해 구체적으로 어떤 활동과 노력을 하느냐는 질문에 그는 "이번 영상제에 출품한 것은 좋은 경험이 되는 활동이었고 구체적인 노력으로는 기본기를 잡고 닦기 위해 꾸준히 그림을 그리고 있다"고 말했다. 그 이유에 대해 그는 "감독으로서 구성력이 아무리 좋아도 표현력이 없다면 팀원들에게 무엇도 전달할 수 없다"며 기본기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상철 기자 ercast@hansung.ac.kr

불안한 길은 없다

한우진(애니제품 1)



변화를 일으키는 작가가 되고파

이성현(한국어문 1)



혹시 여기저기 방황하고 있지는 않은지. 자신이 진정 무엇을 하고 싶은지 아는 것만으로도 이미 성공할 자격을 갖춘 것이다. 시작이 반이라 했다. 그 꿈의 크기가 어떻든 꿈꾸고 있는 사람은 진정 행복한 사람이다. 여기 확고한 꿈과 의지로 자신의 미래를 그려나가고 있는 학생을 만나보았다. 이성현(한국어문 1)학생은 소설가로 등단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는 문학도다. 사회적으로 안정적이고 탄탄한 직장을 찾는데 초점이 맞춰져 자신의 적성과 관심을 갖고 사는 분위기가 대체인 지금, 그는 독특한 진로설계로 보인다. 그는 "현실에 타협해 순응한다면 소위 '잘 팔리는 글'을 쓰겠지만, 작가가 된다면 단순히 재미가 아닌 사람들에게 좋은 영향을 주고 문화적 감동을 선사할 수 있는 글을 쓰고 싶다. 사람들을 변화시킬 수 있는 작품을 남기고 싶다"고 전했다. 그가 소설가에 대한 꿈을 키워온 것은 고등학교 2학년부턴다. 입학 후 그저 재미로 써본 소설이 친구들에게 큰 호응을 얻은 것이다. 그 후 이 길에 대한 생각을 하게 되었다. 그는 소설가가 되고 싶은 꿈을 위해 한국어문학부로 진학했다. 학점관리와 각종 스펙에 집중하는 것은 그에게 별로 의미가 없는 것처럼 보인다. 대신 정말로 중요한 것은 "내가 진정 원하고 즐길 수 있는지"이다. 그는 "가고자 하는 길에 필요한 것은 글 쓰는 것이기에 스펙에 연연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또한 "학점관리에 모든 걸 걸고 스펙을 쌓는 친구들을 보면 안타깝다. 자신의 적성에 맞는 길을 가고 있는지에 대한 생각이 필요해 보인다"고 자신의 소신을 단정하게 밝혔다. 소설을 쓰고 싶어 한국어문학부로 진학한 만큼 그는 대학생활을 풍요롭게 즐기고 싶어 한다. 그는 "취업을 목표로 대학을 오는 사람도 있겠지만, 자신이 좋아하는 것을 좀 더 심화하려고 대학이 필요한 것이라 생각한다. 학점관리만 하면서 진정 대학의 낭만을 즐기지 못하는 것은 상당히 손해라고 본다"며 "대학문화와 젊음의 문화라고 흔히들 한다. 물론 공부는 중요하지만 너무 거기에만 매달리지 말고 다른 것들도 즐겼으면 한다"고 말했다. 현실적인 어려움을 생각해 본 적은 없을까. 이런 질문에 그는 "어려움을 생각해 보지 않은 것은 아니지만, 적성을 고려하지 않고 일반 기업에 들어갈 생각이 없다. 그렇게 되면 글을 쓰는 것이 주가 될 수 없을 것이라 생각한다. 현실의 어려움에 부딪히면 아르바이트 같은 것을 하면서 계속 글을 써볼 것이다"고 이야기했다. 자신이 좋아하는 것을 진정으로 배우고 싶어하는 그에게 대학은 여전히 진리의 상아탑이다.
공유화 기자 gong0330@hansung.ac.kr

기자수첩

기본적인 권리조차 누리지 못하는 '마래의희망들'

벌써 12월, 거리는 크리스마스를 일리는 트리볼로 장식되어 연말 분위기로 훈훈하다. 누구나 어릴 때 '크리스마스'나 연말이 다가오면 얼마산타가 주는 선물을 손꼽아 기다렸던 추억이 있을 것이다. 하지만 한국에서 살고 있는 이주노동자의 자녀들은 어린이로서 누려야 할 기본 권리조차 누리지 못한 삶을 살고 있다. 기자가 다문화가정 아이들을 취재하면서 본 그 이면에는 이주노동자들의 슬픔이 서려있었다. 이주노동이란 한국에서 생활하는 이주노동자의 자녀를 뜻한다. 이들은 현행법상 '불법'으로 분류가 되는 경우가 많아 취학연령이 되고 학교에 입학하기 어렵고, 의료보험 혜택도 받지 못한다. 국내에 불법체류하고 있는 외국인 근로자는 3월 말 기준 5만5천 300여명으로 이들의 자녀 또한 불법체류 신분인 탓에 정확하게 파악되지 않는다. 또 국내 초·중·고교에 재학 중인 외국인 근로자 자녀는 1천270명에 불과하다는 결과가 나왔다. 상당수의 미등록 이주노동자들은 행정적으

로 기록이 되지 않은 채 지내고 있는 것이다. 이들은 법적으로 교육권을 보장받을 수는 없지만 학교장의 재량에 따라 학교를 다닐 수는 있다. 하지만 입학을 꺼리는 경우가 많아 이들에 대한 기록이 서류상에서 사라지고 있다. 설사 학교를 다닌다고 해도 이주노동자들은 타국에서의 실용과 따돌림으로 인해 학업을 포기하는 경우가 많다. 이들은 태생적인 분노와 사회에서 받는 압박, 차가운 시선들로 인한 상처를 안은 채 우울하게 성장하는 것이다. 동남아 국적을 가진 이들은 무시하고 멸시의 눈길을 보내기도 하는 우리들은 과연 이주한 부모에게서 태어나거나 부모를 따라 이주한 아이들에게 불법체류의 책임을 묻고 차가운 눈길을 보낼 자격이 있을까.
이연진 기자 odory11@hansung.ac.kr



주간식단표

2010년 12월 6일(월요일) ~ 12월 10일(금요일)

	월 12/6	화 12/7	수 12/8	목 12/9	금 12/10
한식	돌솥제육비빔밥 (국내산) 유유장국 김치(배추:국내산)	돌솥김치볶음밥 두부된장국 숙수나물무침 깍두기 요구르트	독배기불고기 (국내산) 콩나물국 어묵볶음 김치(배추:국내산)	부대찌개 쌀밥 연두부영양탕 해초무침 깍두기	만둣국 쌀밥 개런말이 찻잎지무침 깍두기
양식	켄리포니아올+유부초밥 새우튀김&샐러드 김치(배추:국내산)	떡갈비정식(국내산) (떡갈비+주먹밥) 잔치국수 옥수수콘샐러드 김치(배추:국내산)	스파게티&마늘빵 수제피클 요구르트	돈까스정식 (국내산) 후라이프스프 맛감자 꿀샐러드 피클	고지덮밥+미일스바 (당장용:미국산) 아재샐러드 맛감자 김치(배추:국내산)
카페 테리아	치즈캐스(국내산) &샐러드	순대야채볶음 (국내산)	만두탕수	김치전	포도피

※ 위 식단은 식자재 공급사처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저의 학생 식당에서는 돼지고기, 닭고기(닭정육, 닭장각) 제외, 김치(배추:국내산, 쇠고기:후추산, 닭정육:미국산, 닭장각(대리):미국산)을 사용합니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⑨		④
②					
⑦			④⑥		
③	⑧		⑧	⑧	
			⑦		
	⑥				

- 정답지 발표
김수현(컴공 2) 010-XXXX-6519
송승욱(경영 1) 010-XXXX-1753
손승희(지정 2) 010-XXXX-6332
- 학과(학년)
이름:
연락처:
정답지에 한해 추첨하여 문화상품권(5천원)을 드립니다. 지난해 정답자는 연락 후에 신분서로 와서 상품권을 받아주세요.
- 문의 : 한성대신문사 (02-760-4186)
- 가로
① 최근에 북한군이 포격된 북방한계선에 있는 섬
② 노동의 새벽이란 시를 쓴 시인의 이름
③ 두 길이 어긋난 곳, 또는 서로 엇갈리는 길
④ 팔레스타인 중앙부에 있었던 고대 이스라엘 왕국의 수도
⑤ 거문고 소리를 듣고 안다는 뜻, 자기의 속마음을 깨닫게 하는 친구
⑥ 호수에 손바닥의 침을 운반하는 사람
⑦ 혈액 속에 들어 있는 붉은색의 고형 성분
⑧ 순조롭지 아니하게 이치를 낚음, 또는 그런 해산.
⑨ 주로 후일에 남길 목적으로 어떤 사실을 적음
- 세로
① 혁명 따위를 연구하고 뒤음
② 영화 '눈물이 주룩주룩', '지금 만나러 갑니다'를 만든 일문인 영화감독 이름
③ 시각을 알리거나 효율적으로 쓰는 중
④ 오메라, 오르토리오 따위에서 기원 받아가 있는 서정적인 가락의 특징
⑤ 유교를 어지럽히는 도적이라는 뜻의 단어
⑥ 혈액의 산과 염기의 평형을 깨쳐서 산성이 된 상태
⑦ 고려 말의 충신 정몽주기 이상계를 문병 갔다가 돌아올 때 피살당한 다리
⑧ 중국 진나라의 조조가 이세황제에게 사슴이 밀리려고 속인 일에서 비롯된 고사



일상을 잊고 잠시 되돌아 보는 시간, 템플스테이

자연 속에서 나를 성찰해보는 시간을 가져보자

아침부터 눈이 내렸던 지난달 27일, 자하 문터널을 지나 구기터널 입구에서 북한산 국립공원으로 향한다. 추운 날씨에 단풍은 어느새 다 떨어지고 쌓여있는 낙엽들과 저 멀리 겨울을 준비하는 나무들이 보인다. 바람이 많이 불어 옷깃에 스며드는 찬 냉기와 날아다니는 낙엽을 맞으면서도 금선사로 향하는 발걸음은 들떠있다.

등산을 나서는 복직한 사람들의 활기를 뒤로하고 비봉코스를 천천히 따라 올라가다 보면 불법의 세계로 들어서는 첫 관문인 일주문과 마주하게 된다. 입제식은 3시, 일행은 절 내부를 둘러보지 못하고 입제식을 위해 서둘러 해탈당으로 가 템플스테이 의복으로 갈아입었다. 잠시 후, 젊은 여자스님이 아직은 서툰 사자의 사람들을 반갑게 맞는다. 이 날 템플 스테이에 참여한 사람은 총 8명으로 한 번도 예불을 드린 적이 없다는 이들이 절반 남짓이다. 남편의 외도로 인해 입은 상처를 치유하고자 하는 중년 여성, 실연의 상처를 극복하려는 학생, 호기심에 불교문화를 체험해보고자 하는 이들이 함께 자리했다. 템플스테이를 담당하는 승원스님은 "인생은 '지금'이 중요하다. 템플스테이도 '지금'이 아니면 체험해 볼 기회가 없으니 감사하는 마음으로 임하자"며 참가자들의 사기를 북돋워 주었다.

목탁 소리에 맞춰 생소하기만 한 불경을 읽으며 입제식이 마무리된다. 이어 사찰 예

절교육이 시작된다. 스님을 보며 서로에게 예의를 갖추어 합장하는 법에서 접하는 방법, 반가부좌로 앉는 법까지 서둘러나마 따라 해본다. 이어지는 명상시간, "속세에서 멀어지고 왔던 집과 힘든 일은 가방에 넣어 던져버려라"는 스님의 마지막 목소리에 억눌렸던 마음이 조금은 편안해지는 느낌이다.

벌써 5시, 도시 한 가운데 자리한 고요한 산사에는 어둠이 깔리고 있었다. 산사를 한번 둘러보고 돌아오니 분주하게 발우공양을 준비하는 모습이 보인다. 공양을 할 수 있음을 감사하는 마음으로 저녁공양을 시작한다. 가장 큰 것부터 차례대로 밥을 담은 어시밭우(鉢盂), 국을 담은 국밭우, 찜수를 담은 찜수밭우, 그리고 반찬을 담은 반찬밭우다. 스님의 설명에 따라 한 데 모였던 그릇들을 제자리에 놓는다. 찜수로 그릇을 적시고, 적당히 털어 공양을 시작한다. 밥그릇 한 쪽에는 그릇을 뒤를 단무지 하나를 올려 놓는다. 참가자들은 더듬더듬 자신의 그릇에 밥과 반찬을 담는다. 큰 그릇으로 먹는 모습을 가리며 보이지 않도록 주의하며 저녁공양을 시작한다. 도토리묵과 시금치, 김치, 콩나물국과 밥이 담백하다. 공양을 마치고 찜수로 발우를 행구며 송송을 받아 남김없이 마신다. "어, 나 단무지 먹을 뻔 했는데..." 소리 없이 공양을 하는 스님과는 달리 참가자들의 공양은 어딘지 모르게 소란스럽다.

이후 큰 법당인 대적광전으로 향한다. 웅대한 비로자나불상 앞에서, 수십 개의 붉은 연등 아래서 영속한 저녁 예불을 올리며 "마하반야바라밀다심경(摩訶般若波羅蜜多心經)"을 따라 읽는다. 참가자들은 큰 스님들의 목탁소리에 놀라 서로 눈치를 보며 절을 올린다.

예불이 끝난 후에는 반야전에서 명상·요가시간을 갖는다. 자신의 앞에 놓인 촛불을 바라보며 명상을 통해 자신의 상처를 치유하며 재충전의 시간을 가진다. 먼저 뜨끈한 바닥에 동그랗게 둘러앉아 스님을 따라 기본적인 스트레칭부터 따라해 본다. 고양이 자세, 정자 자세 등 모두를 서투르게 따라하다 보면 어느새 몸의 긴장은 풀리고 자신의 몸의 감각에 집중하게 된다.

요가가 끝난 후 숙소로 돌아와 온몸이 나른해진 사람들은 하나 둘 자리를 깔고 잠을 청한다. 반나절 체험한 산사에서의 하루의 취침시간을 알리는 종이 울린다. 바람에 따라 딸랑거리는 종소리와, 서늘한 바람 소리가 들리는 산사에서의 밤은 고요히 깊어간다.

다음날, 새벽 5시가 되기 전 도량석 소리에 산사의 새벽이 시작된다. 문 밖에서는 기상을 알리는 청아한 목탁소리가 울려 퍼진다. 간단하게 세면을 마친 참가자들은 대적광전에서 새벽예불을 올린다. 잠이 덜 깨 눈이 감기다가도 스님들을 따라 절을 올리다 보면 어느새 정신이 맑아진다. 예불이 끝나면 108배가 이어진다. 넓찍이 자리를 잡고, 방석 매무새를 가다듬는다. 오디오에서 나오는 스님의 목소리에 맞춰 일 배를 올린다. "나의 시기로 인해 악연이 된 사람"에게 참회하는 두 번째 절을 올리고 "부모님의 감사함을 잊은 것"에 참회하는 열 번째 절을 올리고 "나로 인해 상처받은 사람"에게 참회하는 열 네 번째 고개를 숙인다. 떠돌이인 남자 아이들도 절도 주저않으며 제법 진지한 모습이다. "나의 오만한 행동에 상처입은 사람"에게 참회하는 일흔 번째 절을 하고, "앞으로 최선을 다하고 긍정적으로 살기 위한"

다짐의 백 여덟번째 절을 올린다. 40여 분간 108배를 마친 사람들의 얼굴은 노곤하지만 편안함이 묻어난다.

공양장에서 아침공양을 하고 주지스님과 다담(茶談)이 이어진다. 모두들 연근차를 훌쩍이며 스님의 말에 귀를 기울인다. 주지스님은 "사물을 있는 그대로 편견없이 보는 것이 중요하고 모두에게 진실되게 대하라"고 전했다. 이후 지냈던 방과 절간을 정갈하게 정리하는 율력이 끝나면 북한산으로 향한다. 참가자들은 스님의 지시에 따라 묵언하며 자연의 경치에 집중한다. 돌로 이루어진 산이라 가파르지만 오르는 발걸음은 한결 가볍다. 산 언저리에 모두 모여 앉아 맑은 산 공기를 마시며 단전호흡과 명상을 한다. "들 숨엔 마음의 평화를, 날 숨엔 입가에 미소를" 스님의 마지막 목소리에 모두 자신의 호흡을 가다듬고 자연에 집중한다. 바위에서 내려다 보이는 서울 한복판의 절경은 모두의 마음을 마스하게 만든다. 하산해 점심공양 후 1시가 되면 템플스테이 종료로 알리는 회향식이 열린다. 반야전에서 1박 2일의 생활이 무사히 끝나 감사한 마음을 담아 "마하반야바라밀다심경"을 읽고 앞으로 행복을 살겠다는 다짐의 절을 올린다.

미국에 유학중인 김선태(대학생·21)씨는 "불교를 체험해보기 위해 참가했다. 스님과의 만남과 절에서 보낸 시간들은 차분하게 자신을 성찰하게 되는 계기가 되었다"고 소감을 전했다. 회향식을 끝으로 서로에게 합장하며 인사를 건넨다. 추운 겨울에 만난 소중한 인연들과 마주하며 나를 되돌아봤던 금선사의 추억을 간직하고 집으로 가는 버스에 오른다.

이혜진 기자 odory11@hansung.ac.kr



온 세상이 눈으로 덮인 설국여행

눈 내리는 날의 여행지로는 강원도 대관령이 제격이다. 단언하건대 대관령은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설국 여행지이다. 풍력발전기가 확확 돌아가는 이국적 풍경의 목장과 양떼들이 뛰노는 목장이, 그저 능선을 따라가기만 하면 되는 눈꽃 트레킹 코스가, 잃어버린 미각을 되살려주는 황태덕장이 그곳에 있다.

영동고속도로 황계나들목을 빠져나가 평창군 대관령면 황계리로 향하다 보면 '대관령 옛길' 안내판을 만나게 된다. 그 길에서 좌측으로 방향을 틀면 설국으로 영동고속도로 황계-강릉 구간이 지금처럼 확장되고 선형이 개량되기 이전에 이 길은 고속도로 역할을 톡톡히 해냈다. 지금은 456번 지방도로 격이 낮아졌다.

일단 옛날 영동고속도로의 대관령휴게소까지 간다. 서울 방향 휴게소 뒤편으로 가면 대관령양떼목장이 당신을 반겨준다. 지난 계절에 녹색의 웅덩이 깔렸던 목장 길은 순백의 눈으로 뒤덮였다. 영동철한의 계절이라 양떼를 방목하지 않고 있는 것이 아쉽지만 하다. 그래도 건조 먹이 주기 체험은 가능하다. 순박한 눈방울을 굴리는 양떼들에게 마른 풀을 먹여주는 체험은 어린이들은 물론 어른들도 즐기는 행사이다. 그렇게 양들과 눈인사를 나누고 목장 길을 산책해보자. 미끄러지고 넘어지기도 하지만 서로의 손을 잡아주며 걸다보면 마음은 어느새 동심으로 돌아간다.

이 목장이 유명세를 타기 시작한 때는 불과 몇 년 전의 일이다. 양의 해를 맞아 각종 매스컴에 소개되면서 방문객이 급증했다. 영화, 드라마, CF 촬영 무대로 자주 등장하기도 했다. 이제는 전국적인 여행명소 대열에 올라 매주 토·일요일이면 평균 1천명 넘는 여행객들이 다녀간다. 목장의 규모는 약 6만2천평 정도이며 풀밭 사이로 조성된 산책로는 약 1.4km

정도. 느릿느릿 걸다보면 1시간이 꼬박처럼 흘러간다. 신하군과 김희선이 출연한 영화 '화성으로 간 사나이'의 세트 하나가 남아있는 풀밭은 방문객들이 애용하는 기념사진 촬영 장소. 이 풀밭에서는 가수 윤도현이 모델로 등장하는 모 감기약의 CF도 촬영했다. 국내에서는 찾아보기 힘든 목가적 풍경, 그 하나만으로 대관령양떼목장은 영동고속도로로만 최고의 나들이 명소로 입지를 굳혔다.

보다 힘들게 대관령의 겨울 정기를 받고자 마음먹은 여행객들은 선자령 트레킹에 도전해본다. 평창군과 강릉시를 구분짓는 선자령(1,157m)은 겨울철 눈과 바람이 극치를 이루는 산이다. 대관령 국사성황당 산신각 우측 능선으로 오르면 송신소 철조망이 앞을 가로막는다. 철조망을 따라 10여분 지나치면 서쪽으로 끝없는 초원지대가 펼쳐지는데 겨울철에는 그저 하얗기만 한 은령의 세계로 옷을 갈아입는다. 이곳을 지난 때면 눈보라에 얼굴이 얼얼하다. 하얀 은령을 헤치며 1시간 정도 가면 새봉에 도착한다. 새봉에서부터 정상까지는 세찬 바람과 강한 눈보라가 몸을 휘감아 넘어지고 미끄러지며 백두대간 능선의 웅장한 품에 안기게 된다. 정상에 서면 동쪽으로는 강릉시와 동해바다가 한 눈에 들어오고 북으로는 황병산과 노인봉, 오대산 비로봉도 보인다.

다시 황계리로 돌아와서 용평리조트로 향하면 황태덕장을 만나게 된다. 이곳의 황태덕장은 1960년대 초부터 자리를 잡았다. 추운 눈보라와 한낮의 햇빛이 교차되면서 얼었다 녹았다 하는 동안에 명태는 서서히 황금 빛깔을 지닌 황태로 재탄생한다.

(여행정보)
대관령면사무소 033-335-5301
대관령양떼목장 033-335-1966
글·사진 유현태 (여행작가/대한민국 여행사, 저자)



talk/talk! cinema '피쉬 스토리'

'유령 작가' 당신이 믿는 모든 것을 의심해 볼 것!



고스트라이터. 일명 대필 작가. 의뢰인과 계약을 맺는 그들에게는 불문율이 있다. 절대 자신을 드러내지 말 것. 대신 그들은 의뢰인에게 바란다. 진실을 얘기해 줄 것. 의뢰인이 자신을 보기 좋게 포장하면 할수록, 유령 작가는 그 속을 풀어보고 싶은 욕구를 느낀다. 그 엇갈린 지점에서 '유령작가'의 스텝감이 유영한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유령작가'

는 장르영화의 패기에 충실히 복무하는 수작이다. 동시에 현 국제정세를 은유와 상징으로 절묘하게 풀이한 정치극이기도하다. 정치는 쇼인가? 맞인가? 먹고 먹히는 정글인가? 그것도 아니면 기득권에 의해 조정되어지는 음모의 장인가? 그것에 의문을 던지는 이는 문제적 감독이자 거장인 로만 폴란스키다. 영화는 로버트 해리스의 소설 『The Ghost』를 원작으로 했다.

전편영국 총리 아담 램퍼이스 브로소닌의 회고록을 대필하던 작가가 익사체로 발견된다. 경찰은 작가의 죽음을 자살로 판명하고 사건을 마무리 한다. 그의 후임으로 회고록을 맡게 된 유령작가(이한 맥그리개)는 램이 있는 섬으로 간다. 마침 임기 중 램이 테러리스트 용의자를 미국 CIA에 불법으로 넘겨주었다는 스캔들이 터지고, 사건의 배후에 두 나라간의 모종의 거래가 있었음을 직감한 유령

작가는 전임자의 죽음에도 음모가 있었음을 알게 된다.

'유령작가'는 굉장히 클래식하고, 보수적이면서 장르적 문법에 충실한 영화다. 새로운 테크닉도, 그 흔한 장르의 형식 파괴도 없다. 대신 영화는 인간의 의심과 불안한 심리에서 공포감을 끌어올리고, 사건을 촘촘하게 엮어 관객들의 조바심을 낚는다. 탁월한 심리 묘사로 서스펜스를 제공한 히치콕이 연상되는 순간이다. 사운드의 사용도 깔끔하다. 영화는 단순한 파도 소리만으로, 자동차에 후두둑 떨어지는 빗방울 소리만으로, 방문 밖으로 조그맣게 들리는 발걸음 소리만으로도 긴장감을 습자지처럼 뿜아댄다. 느릿한 전개 속에서도 지루함이 발 디딜 틈 없는 건, 한정된 시간과 공간을 리듬감 있게 분할하고 효율적으로 쪼개낸 연출의 힘이다.

'유령작가'는 영화 외적으로도 상당히 흥

미롭다. 원작 소설이 출간됐을 때, 언론은 램이 영국 전 총리 토니 블레어를 모델로 했다고 추측했다. 친미 정책에서부터 이라크 관련 자료 조작 사건 등이 블레어의 행적과 비슷하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원작 소설가는 "NO!"라며 선을 그었지만, 폴란스키의 생각은 다른 듯 하다. 영화 속에 등장하는 미국 장교를 실제 전 국무부장관이었던 콘돌리자 라이스를 빼다 박은 배우로 '굴이' 캐스팅한 걸 보면 말이다. 폴란스키가 날리는 이 의미심장한 유머는 '미필적 고의'의 냄새가 짙다. 영화는 올해 각종 음모론으로 시끄러웠던 우리에게도 논란의 여지를 던진다. 북한, 천안함, 의문으로 남은 (벌머머)1번인지 1호인지... 우리 사회에도 유령들은 득실거리는 걸까. 영화는 일단, 당신이 믿는 모든 것을 의심해 보라고 경고한다.

글·정시우 (무비스트 기자)

사진이야기



교실수업에 제가 없었던 학급 아이들과 찍었던 사진입니다. 곧 졸업하고 교사임용시험준비에 본격적으로 뛰어들게될텐데요 실습당시의 마을가집과 아이들의 백만불짜리 웃음을 기억하며, 열심히 공부하고 싶은 마음에 가장 맘에 들었던 사진, 졸업을 앞두고 꺼내봅니다.

조영희 (경영 4)